E 01-2020-02

2020 여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1-20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 여름호 | 제23권 제2호 (통권88호)

등 록
인 쇄 2020. 8
발 행 2020. 8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옥소연 syock1101@krei.re.kr, 김충현 goldbl@krei.re.kr, 서홍석 hongseokseo@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1
6. 세계경제 ····· 14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5
2. 농촌 물가 ····· 16
3. 농림어업 취업자 ····· 19
4. 농축산물 수출입 ····· 21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7
2. 엽근채소 ····· 32
3. 양념채소 ····· 37
4. 과일 ····· 44
5. 과채 ····· 49
6. 축산 ····· 56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 63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64

특별주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 79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 95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13

요 약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둔화되었으며,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입의 감소가 영향을 미침.
- 2020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8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53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6.5% 감소함. 2020년 6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의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방한 중국인관광객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0.4%, 1.4%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는 0.1%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4로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2.9%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1.2%, 0.8% 증가하였음. 2020년 6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되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2/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1/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어 미국의 경우 2.1%, 중국 6.8%, 일본 1.9%, 유로 3.6% 둔화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1%, 전기 대비 9.7% 감소함.
- 202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 전기 대비 0.4%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 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3%, 22.8%, 2.6%, 4.2% 상승하여 5.3%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0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개선,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 지수의 상승폭(4.5%)이 농가구입가격 지수 상승폭(1.1%)를 상회하기 때문임.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7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함. 3월은 코로나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음식점 매출액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3월에 이어 4월에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보다는 다소 회복한 상태임.
  - 전국 기준, 2020년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2월에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고, 3월에는 전년 대비 32.0%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 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전년 대비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식재료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2020년 2~4월 기간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업종에서 줄인 식재료 구매액이 약 1조 2,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주점업(2,481억 원), 치킨전문점(1,497억 원) 순
  - 품목군별로는 육류가 6,258억 원으로 구매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5,219억 원), 채소류(3,969억 원), 수산물(2,955억 원) 순
- 등교수업 연기로 인해 약 6,324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았음.
  - 학교급식 식재료 소비 감소액은 3월 1,818억 원, 4월 2,312억 원, 5월 2,19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3개월 동안 약 6,325억 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못함.
- 코로나19에 따른 음식점업 피해와 이로 인한 농식품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식재료 사용량 감소 등에 대응해 수요 확대 및 대체판로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향후 유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비가 필요함.
  - 공동구매 촉진,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유통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대체판로 확보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꾸러미 공급, 학교급식용 국산 김치 모바일 판촉 지원 등이 시행 중임.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생산자단체 혹은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외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이외의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등 공급/판매망 및 납품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급식 식재료 비중이 높은 육류·곡류에 대한 저장 관리 및 소비 촉진 지원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농업 내국인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REI-KASMO 모형을 통해 코로나19의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으로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및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 추정
  - 농업부문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시나리오1)~1.0%(시나리오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 효과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상승 효과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 외식업 수요 급감, 학교급식 중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대부분 필수재라는 특성상 국내외 경제위축에도 파급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크고,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 반면 육류와 과실류는 생산액 증가 추정
  - (화훼류) 2월~3월 성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졸업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과실류) 환율상승으로 수입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와 국산 과일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0.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육류) 주요 생산 국가의 공급망(육가공업체 폐쇄) 차질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와 가정 내 육류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우제류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6%~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되며, 자급률은 상승 추정
  - (수입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수출액) 환율 상승 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p~0.4%p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Ⅰ. 일반경제 동향[1)]

1. 경제성장[2)]

-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소비 및 정부소비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정부지원금 등으로 성장하였으나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2.0%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p]				2019[p]				2020[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1.1	0.6	0.6	0.9	-0.3	1.0	0.4	1.3	-1.3	-3.3(-2.9)
민간소비	1.3	0.3	0.5	0.5	0.1	0.7	0.4	0.7	-6.5	1.4(-4.1)
정부소비	2.2	0.4	2.0	2.3	1.1	1.7	1.7	1.8	1.4	1.0(6.0)
건설투자	1.3	-2.7	-6.9	2.3	-0.7	2.9	-6.4	8.0	0.5	-1.3(0.1)
설비투자	4.7	-8.9	-3.3	2.4	-8.5	2.6	1.7	2.6	0.2	-2.9(1.5)
총 수 출	3.7	1.0	4.2	-1.6	-3.1	1.9	4.5	0.6	-1.4	-16.6(-13.6)
총 수 입	5.4	-2.2	-0.8	1.0	-3.2	2.9	1.2	0.4	-3.6	-7.4(-9.2)

주 1. 2018[p], 2019[p], 2020[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0.07.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6.12., 2020.07.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소비, 민간소비는 증가한 가운데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은 감소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하였으며,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0% 증가함.
  - 2020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3%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 2.9% 감소함.
  - 수출은 자동차,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줄어 16.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함.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 축소되었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건설업도 감소세로 전환됨.
  - 농림어업은 채소 등 작물 감소로 9.7% 감소함.
  -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9.0% 감소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1% 감소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8p				2019p				2020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1.4	-2.1	-3.4	2.8	5.8	-5.5	2.9	-1.5	3.7	-9.7(-5.1)
제조업	1.0	1.4	1.9	1.1	-2.9	1.0	1.8	1.8	-1.0	-9.0(-6.7)
서비스업	1.6	0.5	0.7	0.8	0.6	0.8	0.5	1.3	-2.4	-1.1(-1.7)
(도소매 및 음식숙박)	0.0	1.0	1.2	0.8	0.0	-1.6	0.8	1.4	-4.7	-3.4(-5.9)
(부동산)	-1.0	3.1	0.1	1.4	-2.3	0.8	0.3	0.7	-11.8	-8.6(-18.6)
(정보통신)	4.0	0.3	1.0	-0.4	2.1	2.1	0.4	1.2	2.2	3.7(7.8)
(사업서비스)	1.5	1.8	4.5	2.3	0.5	1.5	3.5	2.4	-3.4	-1.9(0.3)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4.8	-2.5	0.1	0.1	0.3	0.8	-0.4	0.3	-11.9	-9.3(-20.3)

주 1. 2018p, 2019p, 2020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3)]

- 2020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 2020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685만 명으로 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34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가 40만 7천 명, 일용근로자가 8만 6천 명 각각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8천 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5만 3천 명, 17만 3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8	2019					202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27,895	28,186	27,702	28,432	28,328	28,283	27,911	28,075	-1.3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2.4	63.9	63.6	63.4	62.5	62.7	-1.2
취 업 자	26,822	27,123	26,461	27,256	27,382	27,393	26,749	26,849	-1.5
• 농 림 어 업	1,340	1,395	1,158	1,475	1,538	1,409	1,255	1,534	4.0
• 광 공 업	4,529	4,444	4,447	4,438	4,417	4,473	4,453	4,382	-1.3
(제 조 업)	4,510	4,429	4,432	4,424	4,403	4,458	4,438	4,369	-1.2
• 건 설 업	2,034	2,020	1,970	2,030	2,034	2,044	1,962	1,969	-3.0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5	5,966	5,943	5,996	5,982	5,943	5,817	5,641	-5.9
실 업 자	1,073	1,063	1,241	1,176	946	891	1,162	1,226	4.3
실업률(계절조정)	3.9	3.8	3.9	4.0	3.5	3.6	3.7	4.2	0.2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6월 고용동향(2020.06.15.)」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6.12., 2020.07.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0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6.5% 감소함.
- 2020년 4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4.1%), 의복 등 준내구재(20.0%), 화장품 등 비내구재(1.6%)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 대비 5.3% 증가함.
- 2020년 5월 소매한팸는 승용차 등 내구재(7.6%), 의복 등 준내구재(10.9%), 의약품 등 비내구재(0.7%)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4.6% 증가함.
- 2020년 6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방한 중국인관광객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8	2019p					2020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p	5월p
민 간 소 비	3.2	1.7	0.1	0.7	0.4	0.7	-6.5	-	-
소 매 판 매	4.3	2.4	0.9	0.5	0.3	1.9	-6.4	5.3	4.6
(내 구 재)1	5.7	1.8	0.8	0.1	0.4	5.1	-6	4.1	7.6
(준내구재)2	-1.1	0.6	-1.0	1.0	-1.5	-1.3	-17.4	20	10.9
(비내구재)3	2.9	3.4	1.7	0.6	1.0	1.6	-2.1	1.6	0.7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9년, 2020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0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6만 원으로 전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각각 1.8%, 2.2%, 22.4%,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6.12., 2020.07.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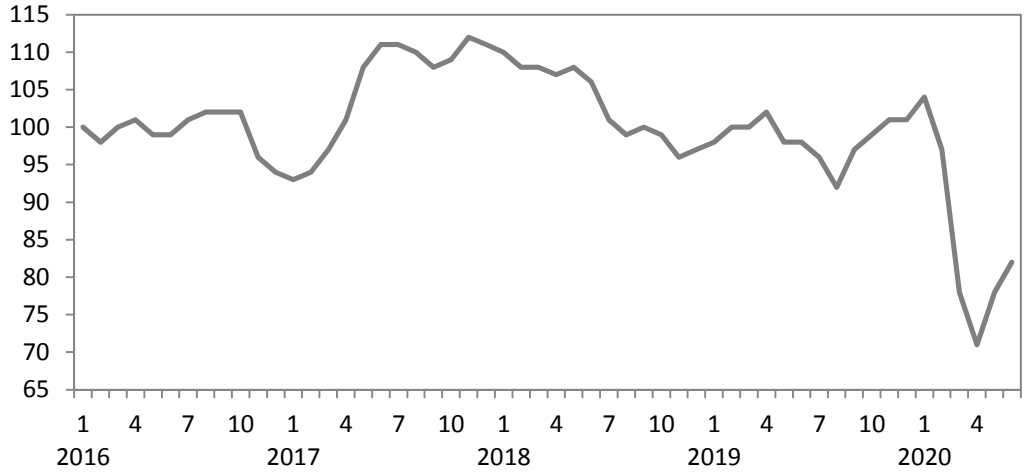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 득	3.7	4.2	4.6	3.6	8.5	11.1	10.0	10.1	3.7
경상소득	7.5	6.3	5.7	4.8	7.7	10.6	9.7	9.5	2.4
(근로소득)	6.1	5.3	4.5	6.2	8.1	12.2	9.7	9.8	1.8
(사업소득)	5.7	3.8	1.1	-3.4	1.5	6.7	8.1	15.0	2.2
(재산소득)	3.4	34.4	9.3	4.9	63.6	63.5	64.3	36.6	22.4
(이전소득)	19.2	16.6	22.8	11.9	12.7	6.2	10.8	-2.8	4.7
비경상소득	-79.2	-68.6	-49.6	-55.3	101.7	66.5	40.1	80.4	79.8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9년 1분기부터 전체가구에 대한 가계동향은 1인 이상 가구로 발표되어 2018년은 전가구(2인 이상), 2019년 이후는 전가구(1인 이상) 가계소득 자료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 2020년 6월 소비심리지수[5]는 82로 4월 71에서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104 → 2월 97 → 3월 78 → 4월 71 → 5월 78 → 6월 82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0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은 0.4%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는 0.1%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1/4
총 지 수	104.5	104.5	104.9	104.9	105.2	105.7	104.8
	(1.5)	(0.5)	(0.7)	(0.0)	(0.3)	(1.2)	(-0.1)
상 품	102.7	101.7	102.5	102.1	103.0	103.7	102.2
	(1.3)	(-0.4)	(0.3)	(-1.0)	(-0.2)	(1.9)	(-0.4)
농축수산물	113.6	112.5	111.3	110.7	112.2	114.7	114.8
	(3.7)	(0.2)	(1.2)	(-5.4)	(-2.5)	(2.0)	(3.2)
공업 제품	102.2	101.0	102.3	102.3	102.7	103.0	100.9
	(1.3)	(-0.7)	(0.0)	(-0.2)	(0.2)	(2.0)	(-1.4)
전기·수도·가스	86.9	88.6	88.6	85.6	90.0	90.0	89.8
	(-2.9)	(1.3)	(1.3)	(1.9)	(1.5)	(1.5)	(1.3)
서 비 스	105.9	106.7	106.9	107.1	106.9	107.4	107.1
	(1.6)	(1.3)	(0.9)	(0.9)	(0.7)	(0.6)	(0.1)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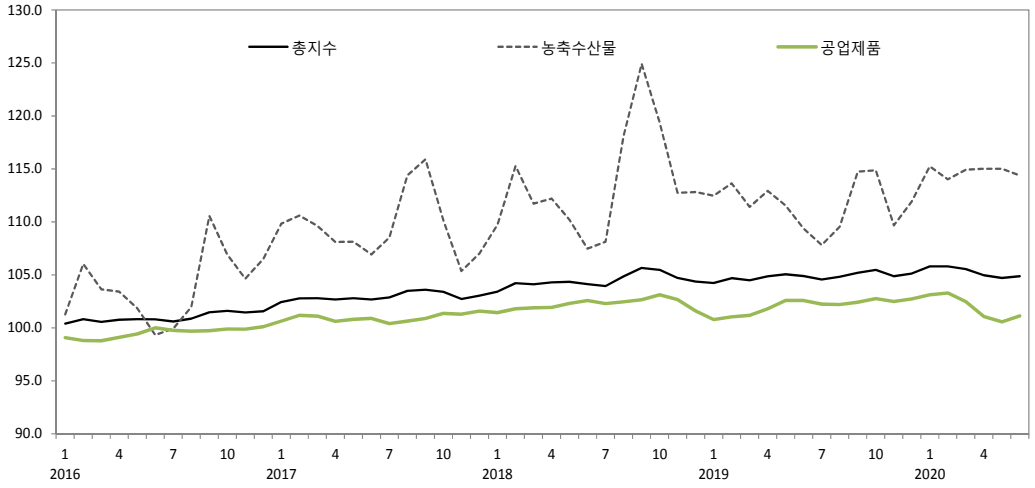
- 2020년 6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는 각각 0.6%, 0.1%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은 0.6% 상승함.

6) 물가 부문은 통계청「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20.07.02.)」, 한국은행「2020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20.07.21.)」,「2020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20.07.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집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서비스는 0.1% 하락하였으며, 개인서비스는 0.1% 상승함.

• 2020년 6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 기타 상품·서비스, 통신, 음식·숙박, 보건은 상승하였으며, 의류·신발, 주류·담배는 변동 없으며, 교육,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0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0.8% 하락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실, 기타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5.2%, 9.2% 하락하였으나 채소는 9.9%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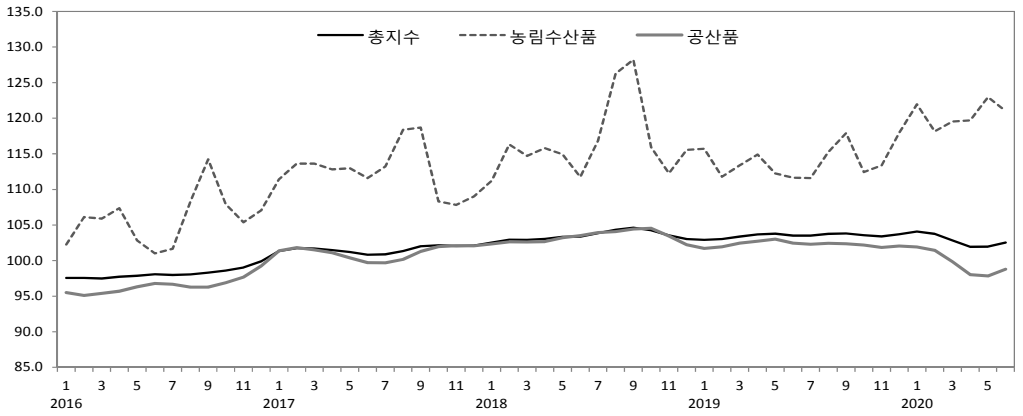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9					2020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4.9	104.5	104.9	104.9	105.2	105.7	104.8	-0.1	-0.8
농산물	111.7	112.5	111.3	110.7	112.2	114.7	114.8	3.2	0.1
곡물	113.7	117.6	113.0	111.4	113.0	117.0	112.7	-0.3	-3.7
채소	118.5	119.6	119.0	118.0	117.5	115.5	114.7	-3.6	-0.7
과실	111.4	110.3	101.9	112.5	120.9	125.7	112.0	9.9	-10.9
기타농산물	110.7	120.7	117.3	103.9	101.1	108.6	111.2	-5.2	2.4
축산물	124.8	130.0	127.2	123.4	118.8	118.0	115.5	-9.2	-2.1
수산물	107.3	103.9	107.6	108.6	109.0	108.3	115.2	7.1	6.4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하였음.
  - 2020년 6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이 모두 하락하여 전월 대비 1.6% 하락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1.0% 상승함.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 가스 및 증기가 하락하여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는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3%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0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4로 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함.
- 2020년 6월 수출물가지수는 94.8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월 대비 0.3%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6% 상승함.
- 2020년 2/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5.0로 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함. 6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상승함.
- 2020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4.7로 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6.0% 하락하였으며,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4.7로 전월 대비 0.3%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99.9	99.6	101.5	101.1	97.7	96.8	94.4	94.5	94.8
	(-3.4)	(-1.8)	(-0.9)	(-4.8)	(-5.8)	(-2.8)	(-7.0)	(-8.4)	(-6.0)
농림수산품	116.8	118.6	117.6	118.1	113.0	116.6	115.0	115.2	114.4
	(1.8)	(4.9)	(4.7)	(2.0)	(-4.0)	(-1.7)	(-2.2)	(-3.2)	(-2.3)
농 산 물	115.9	117.1	116.7	118.5	111.4	115.4	118.2	118.9	117.1
	(15.8)	(30.6)	(25.2)	(12.8)	(-1.0)	(-1.5)	(1.3)	(0.5)	(-0.4)
공 산 품	99.9	99.5	101.4	101.0	97.6	96.7	94.3	94.4	94.7
	(-3.4)	(-1.8)	(-1.0)	(-4.8)	(-5.8)	(-2.8)	(-7.0)	(-8.4)	(-6.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0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98.4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전기 대비 6.3% 하락함.
- 2020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101.3로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5%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3.8% 상승함.
- 2020년 2/4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4.0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6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3.5로 전월 대비 1.6% 하락함.
- 2020년 2/4분기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2.2로 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하였으며, 3월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2.8로 전월 대비 0.3%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109.3	107.3	111.4	110.7	108.0	105.0	98.4	98.8	101.3
	(0.8)	(3.3)	(3.1)	(-1.1)	(-1.7)	(-2.1)	(-11.7)	(-13)	(-7.3)
농림수산품	102.1	97.4	102.6	103.8	104.5	104.0	104.0	105.2	103.5
	(3.9)	(0.8)	(3.8)	(4.8)	(5.9)	(6.8)	(1.4)	(0.9)	(-0.4)
농 산 물	98.6	95.4	100.0	100.3	98.8	99.1	98.8	99.8	98.7
	(1.1)	(0.1)	(1.3)	(2.1)	(1)	(3.9)	(-1.2)	(-2)	(-3.2)
공 산 품	104.4	102.3	105.7	105.8	103.7	103.8	102.2	102.5	102.8
	(1)	(1.6)	(3)	(0)	(-0.6)	(1.4)	(-3.3)	(-4.5)	(-2.1)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7)]

- 2020년 5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2.9% 증가)함.
- 2020년 5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2%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 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감소함.
- 2020년 5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8%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9									202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1]	3.0	3.2	3.3	3.8	4.7	5.0	5.3	7.0	9.6	11.5	12.0	14.6	16.9	19.3
M2[2]	6.6	6.6	6.7	6.6	6.8	7.6	7.5	7.7	7.9	7.8	8.2	8.4	9.1	9.9
Lf[3]	7.7	7.9	8.0	8.0	8.2	8.4	8.3	8.4	8.2	8.2	8.5	8.3	8.6	8.8
본원통화[4]	8.8	9.9	9.2	7.7	9.4	7.5	7.3	8.6	7.8	12.3	8.0	11.6	11.8	15.0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20년 6월 국고채(3년) 금리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추경 관련 수급부담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여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0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0.07.15.)」과 「2020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20.07.10.)」, 「2020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0.07.1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코스피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일시 급락하였다가 주요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인하여 반등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9					202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1.2	1.3	1.4	1.5	1.4	1.4	1.3	1.1	1.0	0.9	0.9
회사채[1]	1.7	1.8	1.9	2.0	1.9	2.0	1.8	1.8	2.1	2.2	2.2
CD유통수익률(91일)	1.5	1.5	1.5	1.5	1.5	1.5	1.4	1.2	1.1	1.0	0.8
콜금리[2]	1.5	1.5	1.4	1.3	1.3	1.3	1.2	1.0	0.7	0.7	0.5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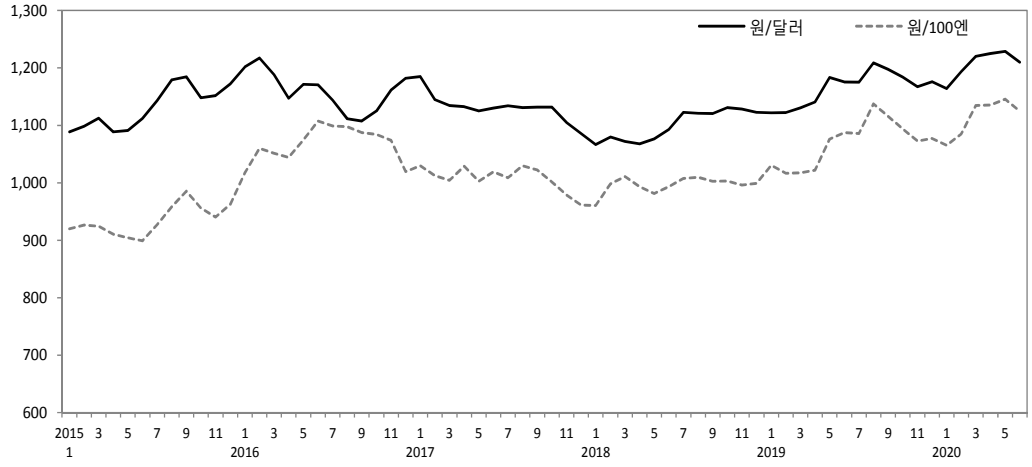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3% 상승한 1,221원임.
  – 2020년 6월 원/달러는 경기회복 기대 지속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 대비 상당폭 하락함.
- 2020년 2/4분기 1,135원/100엔 으로 전기 대비 3.5% 상승하였으며, 원/유로는 1,345로 전기 대비 2.1% 상승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원/달러	1,100	1,166	1,125	1,166	1,193	1,176	1,194	1,221	1,229	1,210
원/100엔	996	1,070	1,022	1,060	1,112	1,081	1,096	1,135	1,146	1,125
원/유로	1,299	1,305	1,278	1,310	1,328	1,302	1,317	1,345	1,339	1,362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8)]

-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소비·고용 등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요인으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빠른 경제활동 재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분기는 3.2% 성장하여 주요국 중 코로나 이후 최초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생산·수출 감소, 소비 부진 지속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으나 6월 PMI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향후 경기부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경제는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5월 실물지표가 전월대비 큰 폭 개선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6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9	2.3	3.1	2.0	2.1	2.1	-5.0	-	-	-
	산업생산(전기비)	3.9	0.9	-0.5	-0.6	0.3	0.1	-1.8	-12.5	1.4	-
	소매판매(전기비)	4.4	3.5	0.5	1.9	1.1	0.4	-2.2	-14.7	18.2	7.5
	실업률(계절조정)	3.9	3.7	3.9	3.6	3.6	3.5	3.8	14.7	13.3	11.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4	1.8	1.6	1.8	1.8	2.0	2.1	0.3	0.1	0.6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7	6.1	6.4	6.2	6.0	6.0	-6.8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2	5.7	6.5	5.6	5.0	5.9	-8.4	3.9	4.4	4.8
	소매판매(전년동기비)	9.0	8.0	8.3	8.5	7.6	7.7	-19.0	-7.5	-2.8	-1.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1	2.9	1.8	2.6	2.9	4.3	5.0	3.3	2.4	2.5
일본	실질GDP(전기비)	0.3	0.7	0.6	0.5	0.0	-1.9	-0.6	-	-	-
	산업생산(전기비)	1.0	-2.7	-2.1	0.0	-1.1	-3.7	0.4	-9.8	-8.9	-
	소매판매(전기비)	1.7	0.1	-1.1	0.2	3.3	-6.4	1.6	-9.9	1.9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0	0.5	0.3	0.8	0.3	0.5	0.5	0.1	0.1	-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9	1.3	0.5	0.1	0.3	0.1	-3.6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3	0.4	-0.6	-0.9	-1.0	-3.5	-18.2	12.4	-
	소매판매(전기비)	1.6	2.3	0.7	0.6	0.5	0.3	-2.6	-29.3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2	1.4	1.4	1.0	1.0	1.1	0.3	0.1	-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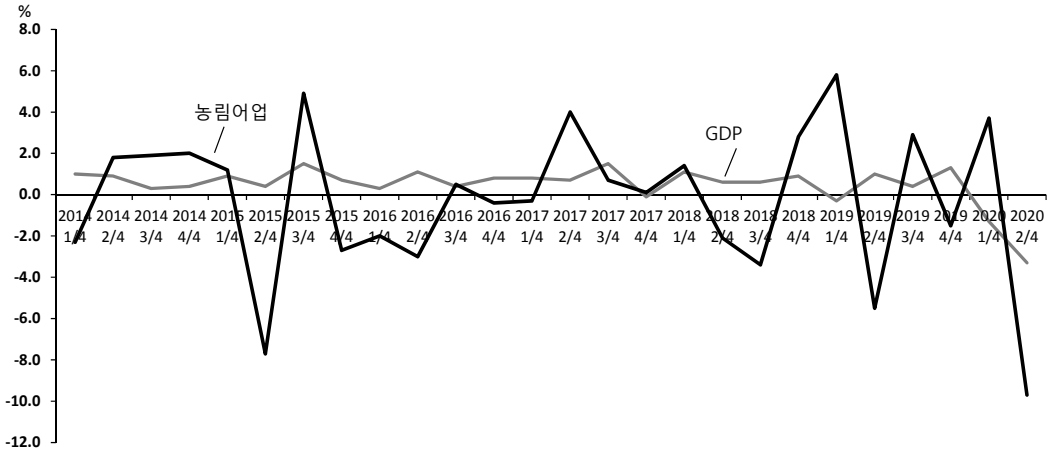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6.12., 2020.07.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Ⅱ. 농촌경제 동향[1)]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0년 2/4분기 7조 6,0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전기 대비 9.7% 감소함.
  -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47조 3,7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전기 대비 9.7% 감소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1)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0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0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상승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1.0로 전년 동기 대비 6.1%, 전기 대비 8.2% 하락함.
  - 서류는 고구마가 전년 동기 대비 48.8% 상승하였으나, 감자는 6.5% 하락함.
  - 두류/잡곡는 옥수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6% 상승하였으나 콩, 팥, 검정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68.5%, 46.9%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1% 하락함.
  - 멥쌀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으나 찹쌀이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하여 미곡은 1.0% 상승하였으나, 맥류는 쌀보리, 맥주보리, 보리쌀 모두 하락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8.9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28.7% 하락함.
  - 엽채류는 상추를 제외한 모든 엽채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상승함.
  - 근채류는 무, 당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6%, 51.1%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4% 상승하고, 전기 대비는 29.2% 하락함.
  - 조미채소류는 파, 양파를 제외한 모든 조미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하락함.
  - 과채류는 수박을 제외한 오이, 호박, 가지, 참외, 메론 딸기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5.0% 상승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2.9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전기 대비 61.4% 상승함.
  - 주요 과실 중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7%, 8.9%, 2.8%, 7.3% 하락하였으나 사과, 감귤, 자두, 매실은 각각 21.9%, 36.3%, 50.2%, 32.8%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8	2019			2020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8.5	109.1	111.6	108.1	113.4	113.0	4.5	-0.4
곡물	280.1	118.2	122.4	128.7	128.8	131.8	121.0	-6.1	-8.2
-미곡	234.3	112.2	122.8	121.8	122.6	136.8	123.8	1.0	-9.5
-맥류	5.5	93.4	96.4	143.8	100.0	167.3	95.1	-4.9	-43.2
-두류/잡곡	23.9	138.0	147.3	165.2	183.3	122.2	124.4	-32.1	1.8
-서류	16.4	148.3	93.4	120.7	109.4	88.7	105.7	-3.4	19.2
청과물	406.5	118.2	117.0	121.9	110.0	122.8	127.9	16.3	4.2
-채소	268.9	110.9	101.6	111.1	85.1	124.7	88.9	4.5	-28.7
-과수	137.6	130.3	142.5	139.9	151.4	119.5	192.9	27.4	61.4
축산물	252.6	97.1	97.4	95.1	98.0	97.9	101.9	4.0	4.1
-가축	185.1	101.6	101.0	101.2	102.4	99.1	106.5	4.0	7.5
-기타	67.5	89.4	91.0	84.4	90.3	95.8	94.0	4.1	-1.9
기타농산물	60.8	101.9	102.3	107.8	99.8	106.1	93.3	-6.5	-12.1
-특용작물	42.4	94.3	98.3	98.1	89.2	96.0	91.1	2.1	-5.1
-화훼	15.3	115.3	108.7	124.1	117.0	122.9	95.9	-18.0	-22.0
-부산물	3.0	93.1	103.5	102.4	102.4	105.5	105.5	3.0	0.0

자료: 통계청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9로 전년 동기 대비 4.0%, 전기 대비 4.1% 상승함.
  - 육계, 오리, 벌꿀, 한우 수소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한우 암소, 한우 암·수송아지, 육우송아지, 성돈, 자돈, 젖소, 계란, 우유 등은 상승함.
-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3.3로 전년 동기 대비 6.5%, 전기 대비 12.1% 하락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0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5.6로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하고, 전기 대비는 0.3%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8	2019			2020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2.5	104.1	103.1	104.4	105.9	105.6	1.1	-0.3
가계용품	484.8	104.6	104.9	104.7	105.0	105.9	105.5	0.5	-0.4
재료비	250.6	92.7	95.6	93.4	96.4	100.1	101.5	5.3	1.4
-종자종묘	27.5	107.7	112.6	112.6	112.6	113.1	113.1	0.4	0.0
-비료비	39.0	72.6	72.6	72.6	72.6	77.9	77.9	7.3	0.0
-농약비	29.3	95.3	96.8	96.8	96.8	118.9	118.9	22.8	0.0
-사료비	136.0	94.4	98.2	94.4	99.5	99.5	102.1	2.6	2.6
-영농자재비	18.7	95.9	97.7	95.4	98.5	102.6	102.6	4.2	0.0
노무비	45.0	114.8	119.6	117.5	119.5	120.6	123.4	3.3	2.3
경비	129.0	102.7	106.6	104.1	106.4	108.4	101.6	-4.5	-6.3
-영농광열비	32.6	108.4	107.7	101.7	110.3	105.6	78.3	-29.0	-25.9
-임차료	40.5	101.3	109.8	108.7	109.2	111.6	111.9	2.5	0.3
-농작업위탁비	42.5	101.7	105.5	103.9	103.9	110.3	110.3	6.2	0.0
-판매자재비	13.3	96.5	97.6	96.5	96.5	99.1	99.1	2.7	0.0
자산구입비	90.6	111.6	112.4	113.6	112.5	110.7	114.3	1.6	3.3
-기계구입	58.9	104.2	104.6	104.5	104.9	104.5	104.2	-0.7	-0.3
-가축구입비	31.7	125.2	126.9	130.4	126.7	122.3	133.0	5.0	8.7

자료: 통계청

- 재료비 지수는 101.5로 전년 동기 대비 5.3%, 전기 대비 1.4% 상승함.
  -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3%, 22.8%, 2.6%, 4.2% 상승함.
- 노무비 지수는 123.4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하고, 자산구입비는 114.3으로 1.6% 상승하였으나 경비는 101.6으로 4.5%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0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한 102.5임.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0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0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개선되었으며, 전기 대비는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1% 상승했기 때문임.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9		2020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1.6	108.1	113.4	113.0	4.5	-0.4
농가구입가격(B)	103.1	104.4	105.9	105.6	1.1	-0.3
농업투입재가격	98.6	101.5	103.6	102.5	1.0	-1.1
농가교역조건(A/B×100)	108.2	103.5	107.1	107.0	3.3	-0.1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0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전기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41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고, 전기 대비는 8.3%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90만 7천 명, 여성 수는 1.8% 증가한 62만 7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79만 5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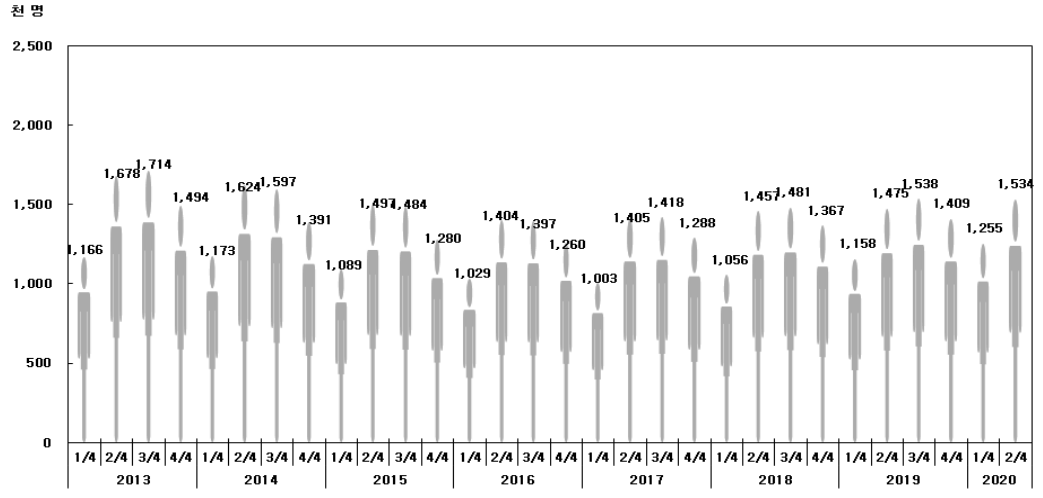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9		2020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461	27,256	26,749	26,849	-1.5	0.4
	(계절조정)	(26,995)	(27,035)	(27,289)	(26,632)	(-1.5)	(-2.4)
	농림어업	1,158	1,475	1,255	1,534	4.0	22.2
	(계절조정)	(1,427)	(1,356)	(1,542)	(1,414)	(4.3)	(-8.3)
	남성	733	859	792	907	5.6	14.5
	여성	425	616	463	627	1.8	35.4
	농가	1,501	1,752	1,596	1,795	2.5	12.5
	농가남성	884	985	944	1,008	2.3	6.8
	농가여성	617	768	651	787	2.5	20.9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9년 1/4분기 115만 8천 명, 2/4분기 147만 5천 명, 3/4분기 153만 8천 명, 4/4분기 140만 9천 명으로 2019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1/4분기는 125만 5천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20년 2분기 153만 4천 명으로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7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곡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과실류와 채소류가 각각 19.6%, 26.4% 감소하여 전체 농산물은 8.9% 감소함.
  - 축산물은 낙농품은 4.8% 감소하였으나 포유육류, 가금육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30.4%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49.3% 증가하였음. 한편, 수산물은 22.7%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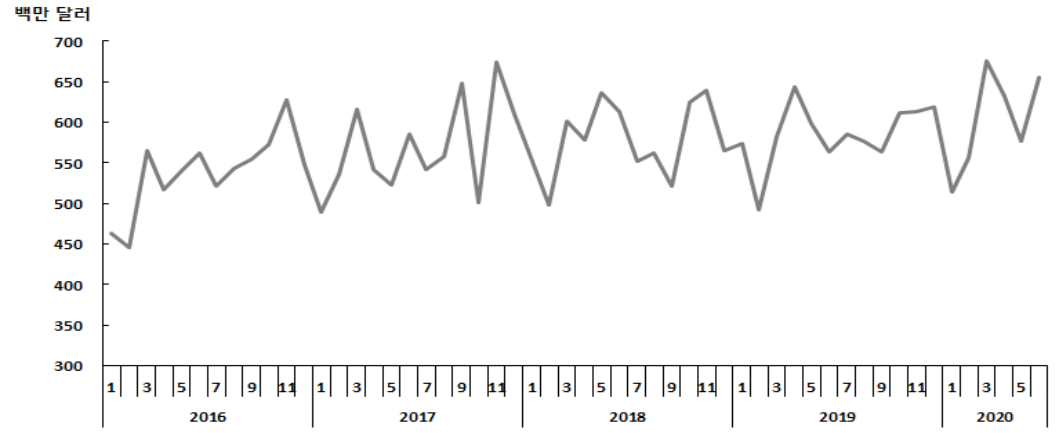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9				2020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20	1,650	1,064	1,807	902	1,745	1,078	1,864	1.3	3.2
농산물	709	1,441	865	1,582	733	1,541	788	1,630	-8.9	3.0
-곡류	12	9	62	28	14	11	64	26	1.8	-7.8
-과실류	28	72	23	55	27	74	19	47	-19.6	-13.3
-채소류	35	111	64	111	29	115	47	123	-26.4	10.4
축산물	38	102	40	124	45	112	52	129	30.4	4.2
-포유육류	0	2	0	2	1	4	1	6	277.5	158.5
-가금육류	15	17	12	16	13	18	15	21	22.8	33.3
-낙농품	8	32	10	43	10	39	10	38	-4.8	-10.3
임산물	174	107	159	101	123	92	238	105	49.3	3.9
수 산 물	172	596	183	672	174	545	141	553	-22.7	-17.6
전 체	1,092	2,245	1,247	2,479	1,076	2,290	1,219	2,418	-2.2	-2.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8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와 과실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13.3% 감소하였으나 채소류가 10.4% 상승하여 3.0%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낙농품은 감소하였으나 포유육류, 가금육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함.
- 2020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2%, 전월 대비 13.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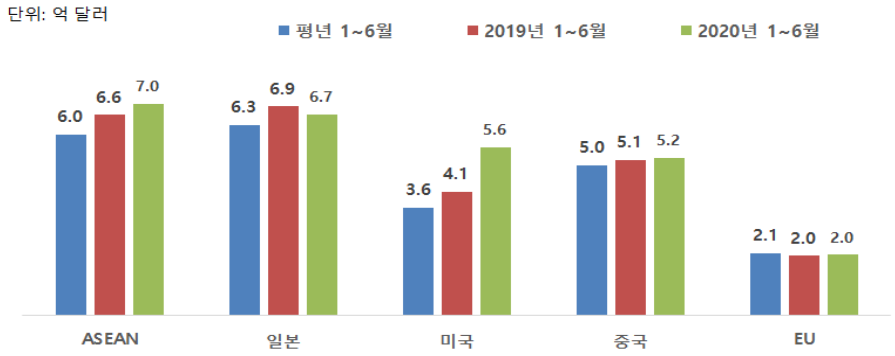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6월 농축산물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6억 1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1.5% 증가한 22억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미국, 중국 등의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對미국 누적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20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80.6으로 전기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든 항목이 100이하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국 경기가 45.1로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됨.[2)]

–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25.5%), 이외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4.0%), 물류비용 상승(14.0%)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0년 2분기」.

4.2. 수입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87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 5.4%, 3.2% 감소함.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함.
  –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3.4%, 8.4%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옥수수, 대두는 증가하였으나 쌀, 보리, 밀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과실류는 키위, 파인애플, 오렌지 등 주요 수입과일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함.

2) 한국무역협회, '2020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0.06.19).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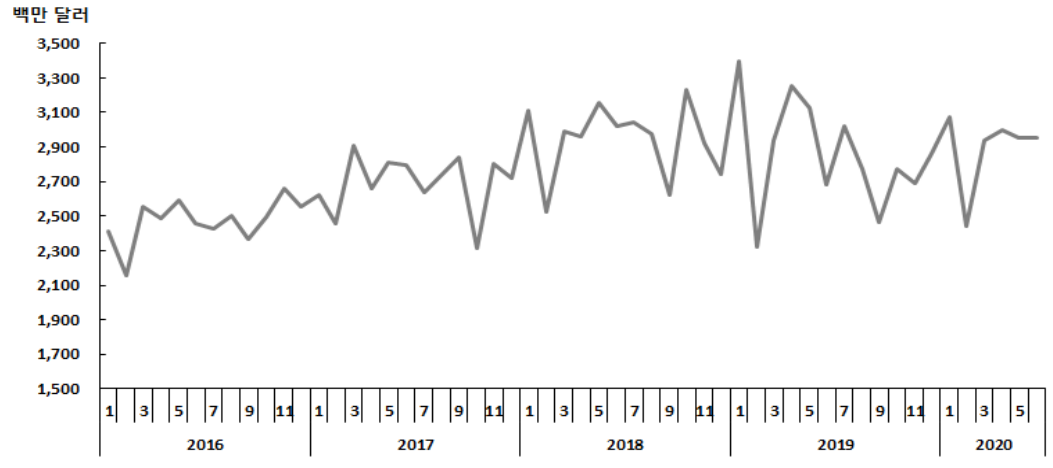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41	8,654	14,065	9,060	13,315	8,454	13,875	8,902	-1.3	-1.7
농 산 물	8,449	4,850	9,226	5,390	9,039	5,059	9,203	5,442	-0.3	1.0
-곡류	3,754	917	3,990	1,042	4,099	991	4,064	1,027	1.9	-1.4
-과실류	314	504	392	697	316	494	356	613	-9.2	-12.0
-채소류	311	225	295	232	296	236	297	245	0.8	5.6
축 산 물	481	2,006	461	1,920	441	1,964	437	1,856	-5.4	-3.4
-포유육류	299	1,367	275	1,231	256	1,295	241	1,160	-12.4	-5.8
-가금육류	47	111	45	112	42	107	42	105	-6.7	-6.6
-낙농품	79	265	83	271	80	289	84	297	0.8	9.5
임 산 물	4,412	1,799	4,377	1,750	3,835	1,431	4,236	1,604	-3.2	-8.4
수 산 물	1,272	1,444	1,413	1,406	1,257	1,356	1,413	1,323	0.0	-5.9
전 체	14,613	10,098	15,477	10,466	14,572	9,810	15,288	10,225	-1.2	-2.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9억 5,37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전월과는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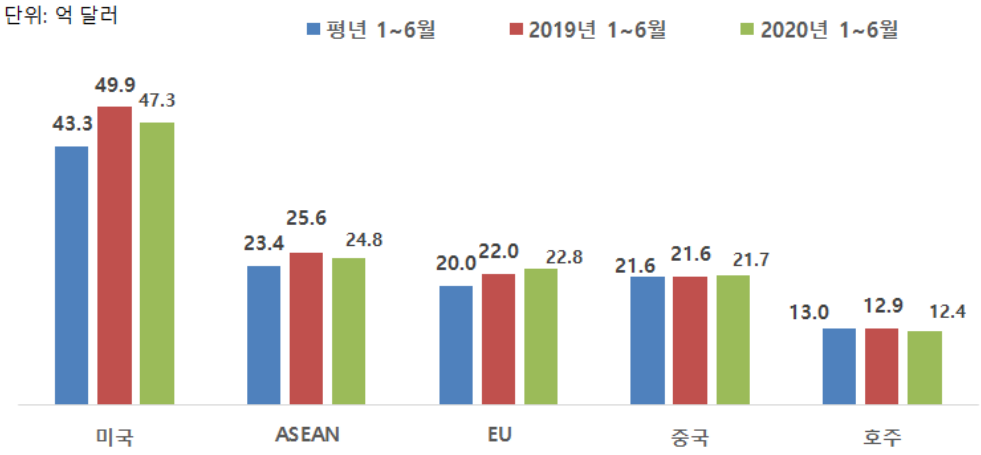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1~6월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72억 1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누적수입액은 4.1% 감소한 146억 4천 만 달러임.
  - 주요 수입국 중 EU, 중국으로 부터의 누적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0년 2분기」.

4.3. 순수입 동향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8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41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38만 4천 톤임.
- 2020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70억 4천만 달러임.
  - 농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은 각각 39.%,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9년 2/4분기		2020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000	7,253	12,797	7,038	-1.6	-3.0
농 산 물	8,361	3,807	8,414	3,812	0.6	0.1
축 산 물	421	1,797	384	1,727	-8.8	-3.9
임 산 물	4,218	1,649	3,998	1,499	-5.2	-9.1
수 산 물	1,230	734	1,272	770	3.4	4.9
전 체	14,231	7,987	14,069	7,808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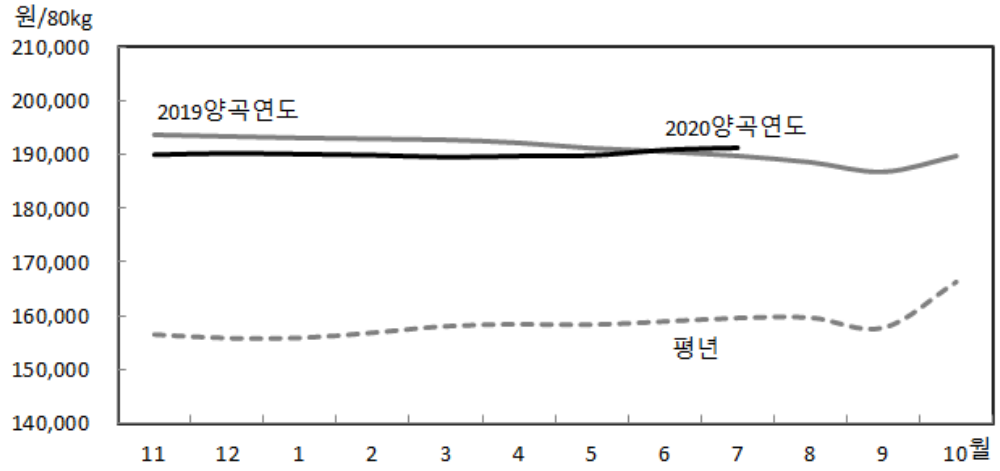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1)]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5~2019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0년 2/4분기 동향
  - 2020년 2/4분기 산지 쌀 가격은 산지유통업체 재고 부족과 이에 따른 벼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및 전 분기 대비 각각 0.1%, 0.2% 상승한 19만 137원/8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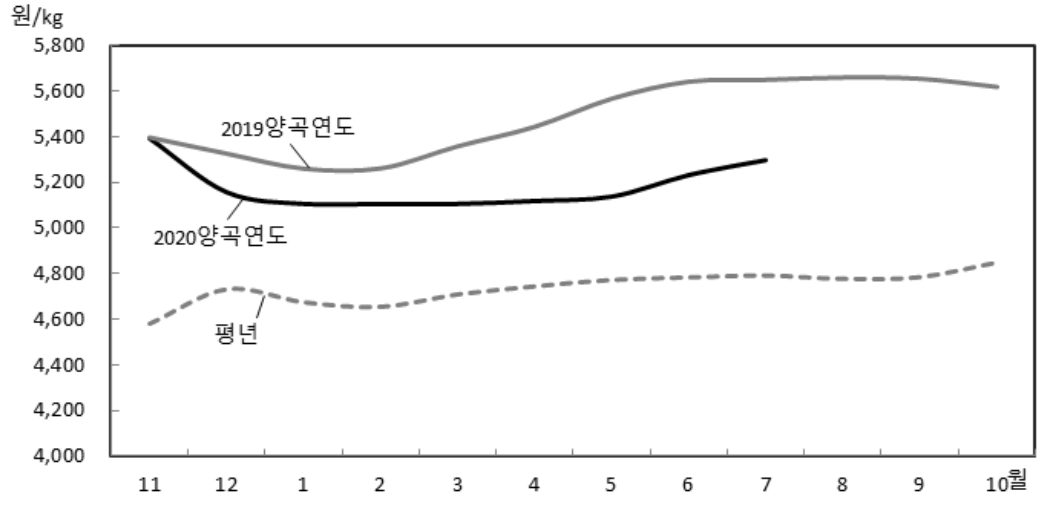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성진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강두현(kdh05@krei.re.kr), 안정욱(ahn035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특히, 5월 중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쌀 판매가 늘어 소비 감소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19만 1,264원/80kg으로 산지재고의 전년 대비 감소폭이 확대(△14.6%, 6월 말 기준→△18.6%, 7월 20일 기준)되면서 수확기(10~12월) 가격 대비 0.7%상승하였으며, 벼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도 0.2% 상승
- 3/4분기 산지 쌀 가격은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전년보다 적은 수준이며, 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쌀 판매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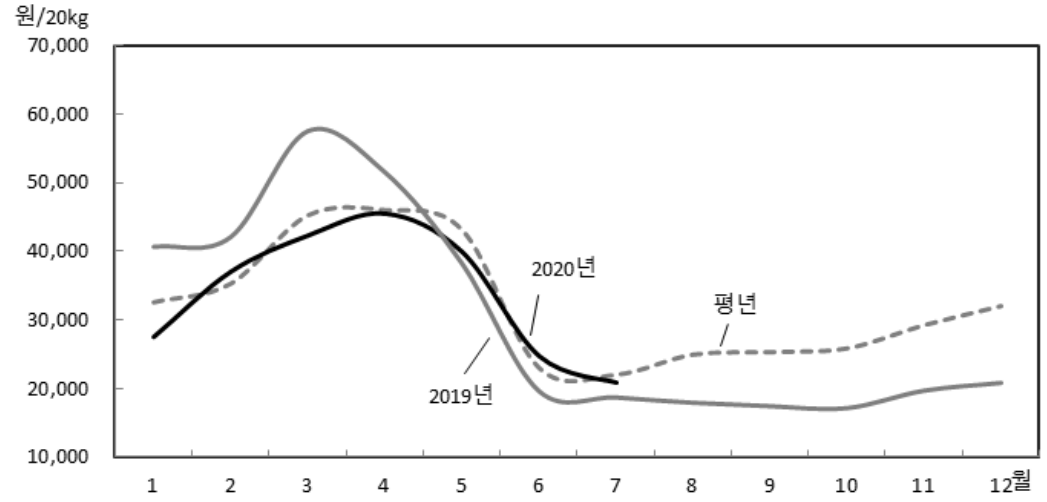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5~2019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2020년 2/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161원/kg으로 전 분기 대비 1.1% 상승
  - 정부수매물량 증가로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3.6% 감소하였고, 계절적 수요 및 개학으로 인한 급식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콩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상승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시장공급물량 감소에도 9월까지 매월 750톤 규모의 정부 공매가 계획되어 있어 3/4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2/4분기 대비 약보합세 전망
    ※ 정부는 공매 물량에 대한 수요 및 콩 시장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 공매시기를 10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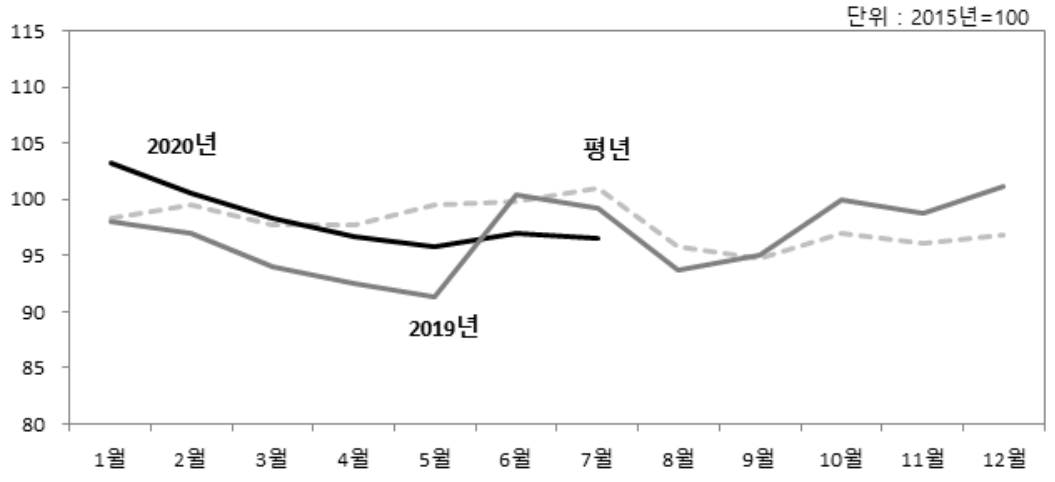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5~2019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6,650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
  - 2/4분기 수미 가격은 4~5월 시설 봄감자 출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6월 들어 노지 봄감자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2/4분기 평균 가격도 소폭 상승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수미(상품) 도매가격은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감소 및 작황 부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8.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육기 가뭄 이후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5~2019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0년 2/4분기 동향
  - 2020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4.2% 하락한 96.5임.
  - 코로나 19 확산에 주요 곡물의 수요 감소와 양호한 기상여건 등이 2/4분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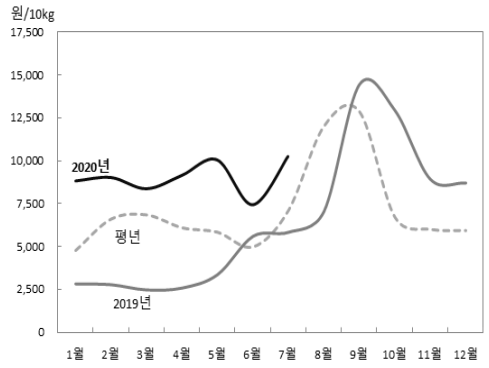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주산지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우려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2020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2% 상승한 96.7로 전망됨.
  - 8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1]는 -1.67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단계가 전망됨.
  - 그러나 주산지 기상 및 미·중 관계 불확실성에 따른 작황 변동 가능성은 선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1)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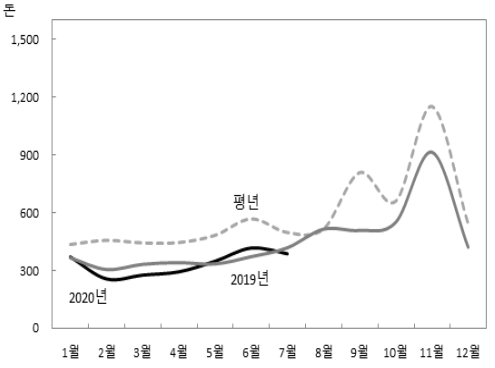
2. 엽근채소[2)]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분기 동향
  - 2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8,870원/10kg(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3%, 129.8% 상승)
  -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 감소 및 봄배추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 감소
    * 2020년 가격: (4월) 9,140원/10kg, (5월) 10,040원, (6월) 7,420원
    * 2분기 가격: (2020년) 8,870원/10kg, (2019년) 3,860원, (평년) 5,640원
- 2020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노지봄배추 저장량 4만 3천 톤 내외(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29.7% 증가)
    * 저장출하 종료 시기 전년(9월 상순)과 평년(8월 하순) 대비 빠른 8월 중·하순 예측
  - 2020년 고랭지배추 생산량 36만 5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6%, 7.3% 감소)
    * 재배면적: 4,704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5%, 6.5% 감소)

2)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한은수(hanes012@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단수: 7,769kg/10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 0.9% 감소), 6월 가뭄, 7월 잦은 비로 작황 다소 부진

- 3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 3% 감소
- 3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9,110원/10kg) 및 평년(10,650원)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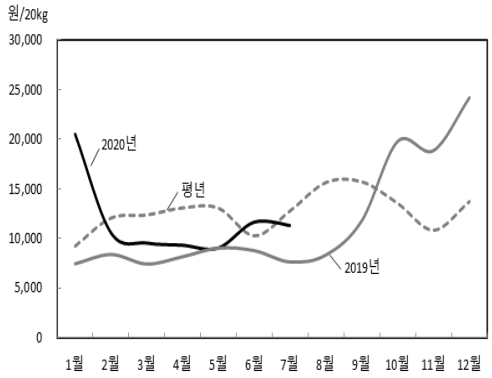
• 2020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0년 가을배추 재배의향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8.6%, 4.1% 증가한 13,006ha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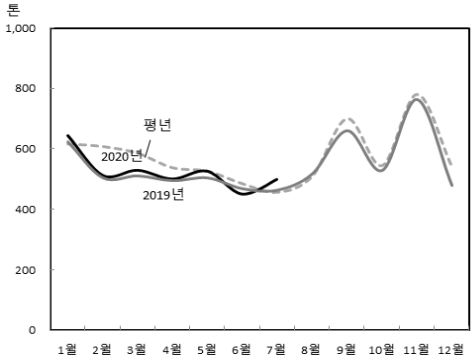
*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의향 증가, 주로 감자, 고추 등의 후작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분기 동향

- 2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0,020원/20kg(전년 대비 15.8% 상승, 평년 대비 17.4% 하락)
- 봄무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월동무 저장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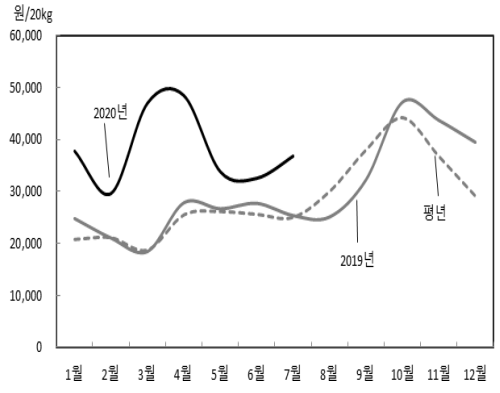
* 2020년 가격: (4월) 9,340원/20kg, (5월) 9,060원, (6월) 11,650원

* 2/4분기 가격: (2020년) 10,020원/20kg, (2019년) 8,650원, (평년) 12,1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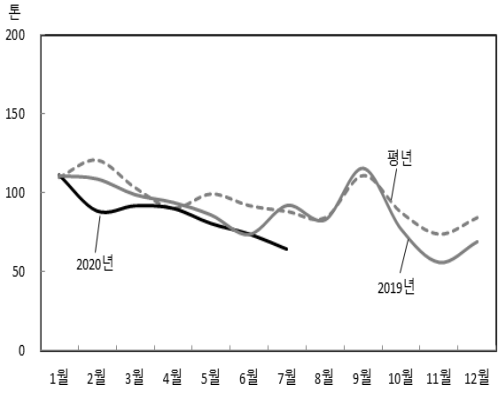
- 2020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노지봄무 저장량 1만 6천 톤(전년 대비 11.2%, 평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20년 고랭지무 생산량 23만 2천 톤(전년 대비 6.4% 감소, 평년 대비 1.9% 증가)
    * 재배면적: 2,422h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 1.3% 감소)
    * 단수: 9,574kg/10a(전년 대비 6.4% 감소, 평년 대비 1.9% 증가)
  - 3분기 무 출하량은 봄 저장 및 고랭지무 출하량 증가로 평년 대비 3.2% 증가
  - 3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9,250원/20kg) 대비 상승, 평년(14,700원) 대비 하락
- 2020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 2020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6%, 2.3% 증가한 5,858ha 전망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이 높아 재배의향 증가, 주요 대체작목은 콩, 옥수수, 고구마 등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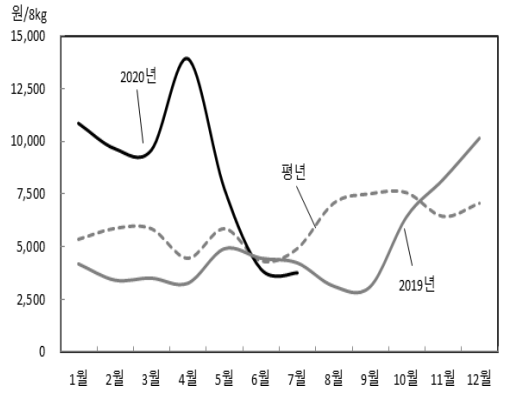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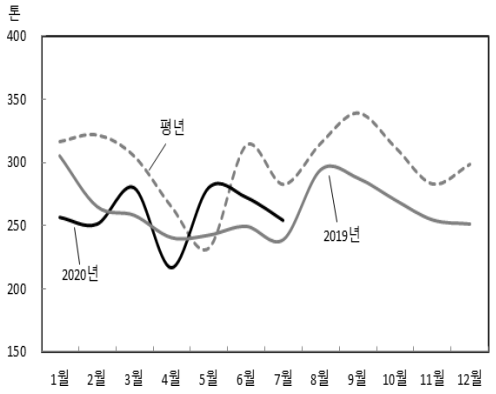
- 2020년 2분기 동향
  - 2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38,340원/20kg(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9.6%, 48.9% 상승)
  - 겨울당근 저장 및 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2020년 가격: (4월) 48,530원/20kg, (5월) 32,600원, (6월) 36,880원
    * 2분기 가격: (2020년) 38,340원/20kg, (2019년) 27,470원, (평년) 25,740원
- 2020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봄당근 저장량 1만 톤 내외(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8%, 9.4% 감소)
  - 2020년 고랭지당근 생산량 6천 5백 톤 내외(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5%, 46.0% 증가)
    * 재배면적: 273h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3%, 45.2% 증가)
    * 단수: 2,374kg/10a(작황 양호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0%, 0.6% 증가)
  - 3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1%, 10.2% 감소
  - 3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27,640원/20kg) 및 평년(31,010원) 대비 상승
    * 다만 고랭지당근 출하가 9월 이후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2020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 2020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7%, 15.3% 증가한 269ha 전망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 강세로 재배의향 증가, 주요 대체작목은 마늘 등
    * 잦은 집중호우로 영남지역 가을당근 파종은 지연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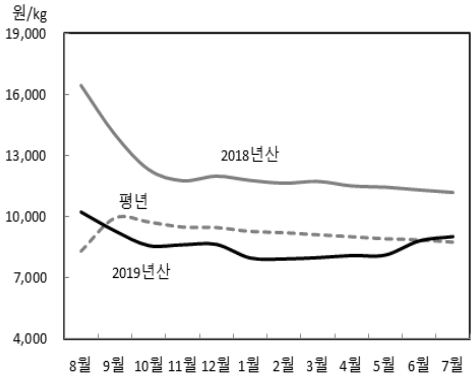
- 2020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8,540원/8kg(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3.8%, 74.1% 상승)
  - 2019년산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2020년 가격: (4월) 13,920원/8kg, (5월) 7,740원, (6월) 3,950원
    * 2/4분기 가격: (2020년) 8,540원/8kg, (2019년) 4,190원, (평년) 4,900원
- 2020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7만 7천 톤 내외(전년 대비 8.5% 감소, 평년 대비 5.2% 증가)
    * 재배면적: 1,716h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 6.9% 증가)
    * 단수: 4,467kg/10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2%, 1.5% 감소)
    * 잦은 강우로 조생종 고랭지양배추 작황은 부진한 반면, 중생종은 양호
  - 3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대비 7.1% 감소, 평년 대비 4.5% 증가
  - 3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전년(3,470원/8kg) 대비 상승, 평년(6,520원) 대비 하락

- 2020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0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4%, 18.6% 증가한 782ha 전망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 강세로 재배의향 증가, 주요 대체작목은 마늘, 대파 등
    * 잦은 집중호우로 충청지역 가을양배추 정식은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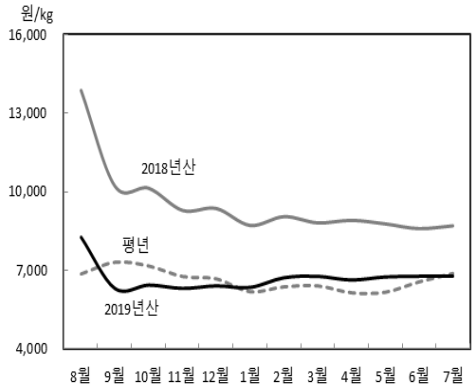
3. 양념채소[3)]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4년 8월~2018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0년 2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2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7% 낮은 8,369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 낮은 6,730원

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도매가격: (금년) 8,369원/600g, (전년) 11,444원, (평년) 8,945원
* 산지가격: (금년) 6,730원/600g, (전년) 8,767원, (평년) 6,304원

- 이는 공급 증가로 재고가 전년보다 많았기 때문
- 다만, 6월 도매가격은 급식 재개 등에 따른 소비증가로 전월 대비 9% 상승

• 2020년 3분기 생산 동향 및 전망

-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결과(07. 02.) 2020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5%, 3% 감소한 29,961ha
- 고추 생육(7월 상순 기준)은 평년과 비슷하나 잦은 비와 일조부족 등으로 전월(평년 기준) 대비 저조

2020년산 6~7월 고추 생육 상황(평년 대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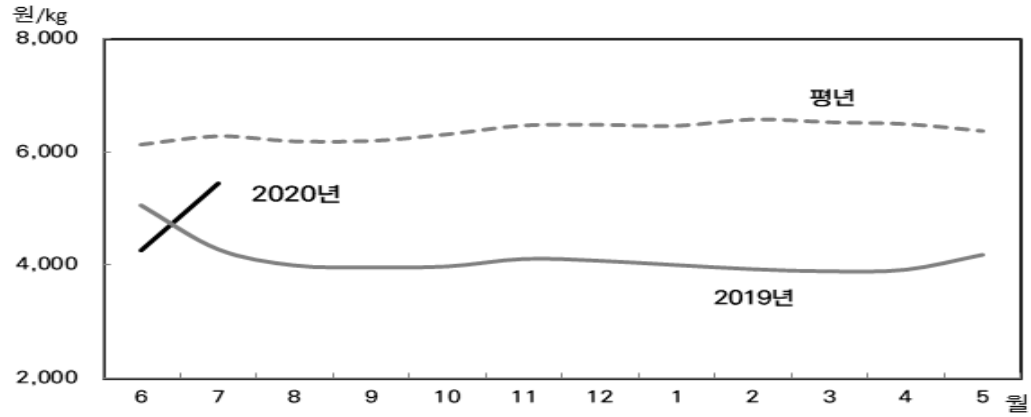
	6월			7월		
	좋음	비슷	나쁨	좋음	비슷	나쁨
전 국	12.5	82.5	5.0	7.1	76.9	16.0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전년과 평년 단수를 적용한 2020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3~5% 감소한 74,300~76,100톤 전망
- 8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재고량이 적고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평년 대비 높을 전망

3.2. 마 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5년 6월~2020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0년 2분기 동향
  -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0년산 햇마늘 수확 이전 재고 소진을 위한 저장업체의 출고의향 확대로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25%, 35% 하락
    * 깐마늘 도매가격: (금년) 4,118원/kg, (전년) 5,460원/kg, (평년) 6,339원/kg
    * 월별 도매가격: (4월) 3,915원/kg, (5월) 4,179원/kg, (6월) 4,260원/kg
- 2020년산 마늘 생산 동향
  -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결과, 2020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10% 적은 35만 톤
    * 2020년산 재배면적은 한지형이 전년보다 2% 증가한 5,199ha, 난지형이 11% 감소한 20,173ha
    * 2020년산 마늘의 10a당 수확량은 잦은 기상변동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한 1,381kg

2020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0	25,372	1,381	350,467
2019	27,689	1,400	387,671
평년	24,603	1,239	304,839
전년 대비	-8.4	-1.3	-9.6
평년 대비	3.1	11.5	15.0

주: 재배면적은 통계청 기준이며,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결과임.
자료: 통계청

-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10만 1천~10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 내외 감소 추정
    * 농업관측본부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결과(7. 20.),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
    * 농업관측본부 입고량 모형 분석결과,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
  - 2020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3,400원/kg 내외로 전년 대비 90% 상승
    * 남도종과 대서종 입고가격은 각각 2,700원/kg, 3,700원/kg 내외 추정

2020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입고량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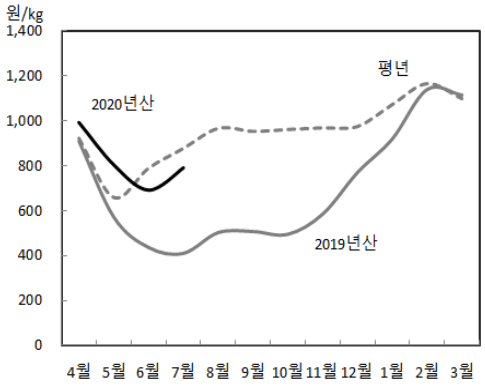
연산	2020	2019	전년 대비
조사치	105,300	120,621	-12.7
추정치	101,075	120,621	-16.2

자료: 농업관측본부, 7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및 모형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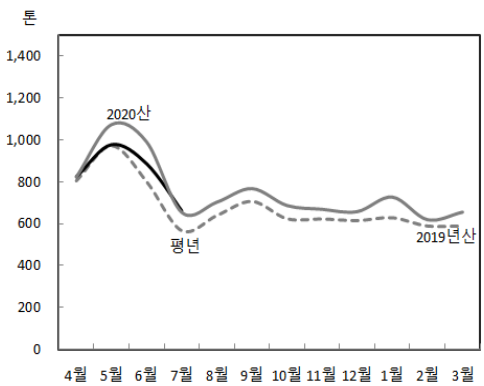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가격 동향 및 전망
  - 7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27% 높은 5,450원/kg
  - 8~9월 마늘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7월 대비 강세 전망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5년 4월~2020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30% 높은 상품 kg당 829원
  - 2분기 양파 일평균 반입량은 전년보다 7% 적은 896톤
    * 2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4월) 824톤, (5월) 977톤, (6월) 886톤

- 2020년산 양파 생산 동향
  -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결과 2020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감소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134만 톤
    * 양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18% 감소, 단수 전년 대비 2% 증가
  - 품종별로 조생종양파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20만 3천 톤, 중만생종양파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13만 7천 톤

2020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ha,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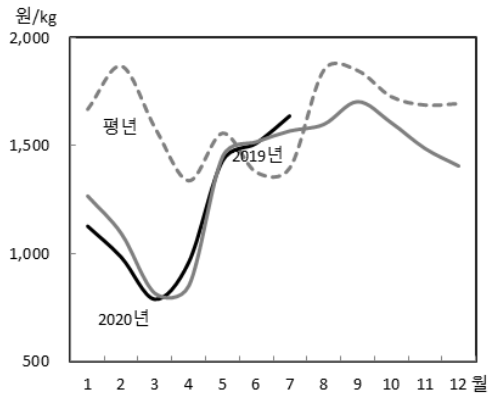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0	17,930	7,474	1,340,134
2019	21,778	7,322	1,594,450
평 년	20,404	6,476	1,321,404
전년 대비	-17.7	2.1	-16.0
평년 대비	-12.1	15.4	1.4

자료: 농업관측본부 조사치, 통계청

- 2020년 3분기 가격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790원으로 전년(410원) 대비 93% 상승
  - 8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0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500원)보다 높을 전망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1월~201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분기 동향
  – 대파 2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300원(중품 1,060원)으로 전년 대비 2% 높았으나, 평년 대비 9% 하락
    * (금년) 1,300원/kg, (전년) 1,275원, (평년) 1,425원
    * (4월) 958원/kg, (5월) 1,430원, (6월) 1,512원
  – 대파 2분기 가격은 전남지역 추가 포전정리 시행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

• 2020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산지우천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량이 줄고, 품위간 가격차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5% 높은 1,640원
  – 3분기 출하량은 강원지역 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3분기 가격은 강원지역 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지속된 수익성 둔화로 전남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면적 감소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연산		재배면적
2020		2,986
2019		3,273
평년		3,131
증감률	전년	-8.8
	평년	-4.6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전남지역 지역별 겨울대파 재배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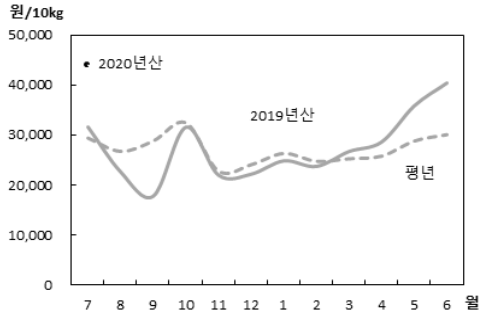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대비	-7.3	-9.6	-12.9	-8.1	-8.8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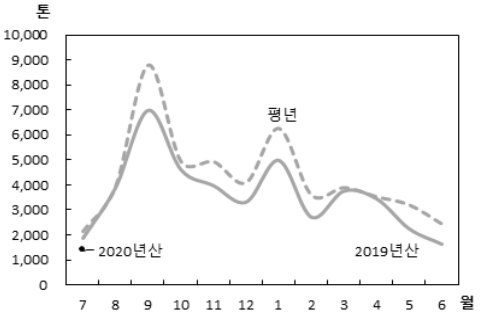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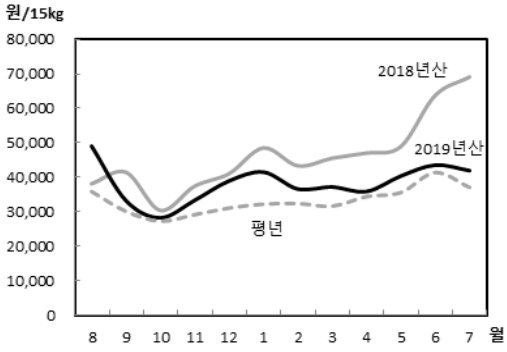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5~19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0%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5,000원이었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햇사과(쓰가루) 도매가격은 저온피해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9%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4,100원이었음.
  - 8월 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9% 적겠으며, 9월 출하량도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49만 1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 감소하였고, 저온피해로 단수도 전년 대비 4% 적을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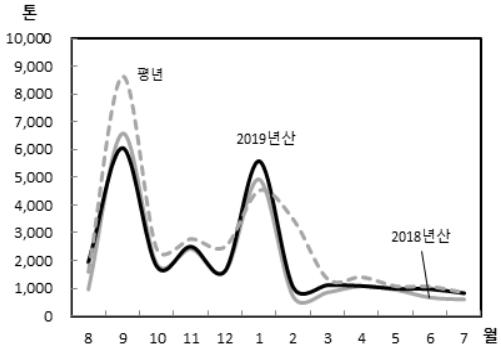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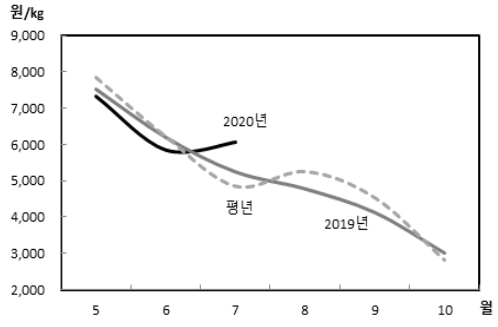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로(전년 대비 15%) 전년 대비 25%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원이었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39% 하락한 상품 15kg 상자에 4만 2,100원이었음.
  - 8월 원황(조생종)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5% 적을 것으로 전망됨. 전년 이른 추석(9.13.) 영향으로 신고 출하가 빨리 시작되었으나, 올해 추석은 전년 대비 18일 늦어 조생종 출하를 8월에서 9월로 늦추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9월 배 출하량도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생산량 전망
  - 2020년 배 생산량이 16만 2천 톤 내외로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인 전년 대비 5% 감소하였고, 봄철 저온피해로 인한 결실률 저하로 단수도 전년 대비 15% 줄 것으로 전망됨. 올해는 개화기 및 착과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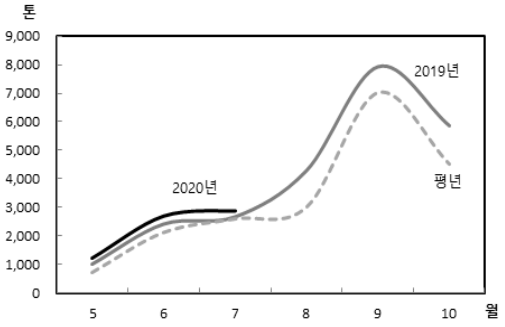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기형과와 유체과(숫배 등) 발생이 많아 정형과율은 전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측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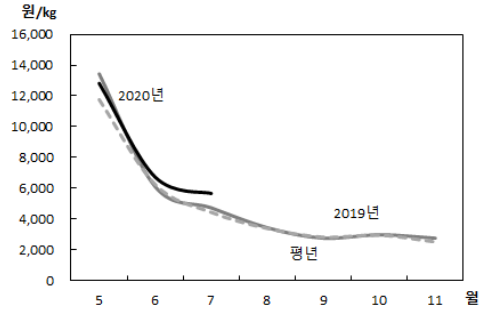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19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20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전년 대비 4% 하락한 kg당 6,300원이었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5,300원) 대비 15% 높은 kg당 6,000원이었음. 이는 출하량은 전년 대비 15% 많았으나, 당도, 모양 등 품질이 양호하여 소비가 원활했기 때문임.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보통가온 출하가 앞당겨진데다, 후기가온 및 무가온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4% 많을 것으로 전망됨. 9월 이후에도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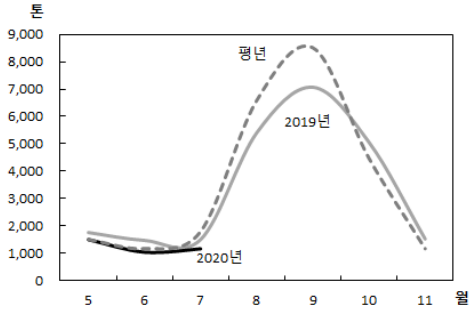
- 2020년 노지온주 착과수
  - 올해 노지온주 단위면적(10a)당 착과수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로 제주시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전년 대비 착과수가 11% 증가한 반면, 지난해 착과수가 많았던 서귀포시는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5~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벨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거봉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상품 2kg 상자에 2만 4,400원으로 전년 대비 24% 높았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거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44% 높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9,055원,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0% 높은 상품 2kg 상자에 9,209원이었음. 재배면적 감소로 거봉과 캠벨얼리 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7%, 11% 적었음.
  - 반면, 샤인머스캣 7월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자 선호가 높아 전년 대비 13% 높은 상품 2kg 상자에 5만 1,771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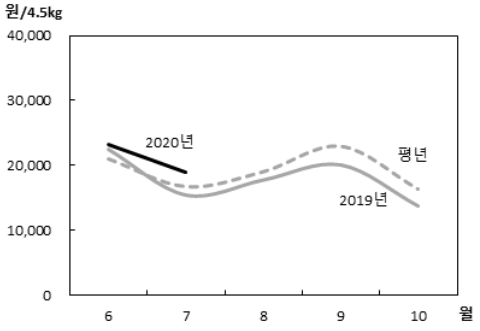
- 8월 캠벨얼리와 거봉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11%,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샤인머스켓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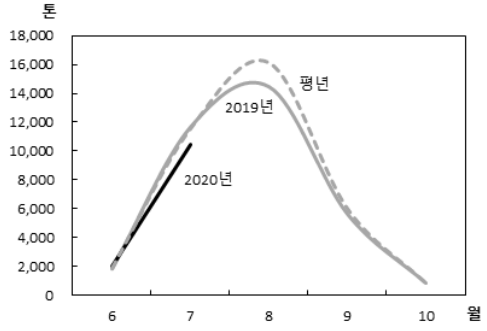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6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 성목 면적은 전년 대비 6% 감소하나, 생육기 기상 호조로 단수가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5~19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6월 천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 대비 3% 높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3,200원이었음. 출하량은 전년 대비 많았으나, 소비대체재(수박·참외·사과 등)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복숭아 가격도 동반상승 하였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평균 도매가격은 저온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6%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800원이었으며, 백도(유모계)도 전년 대비 22% 높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8,900원이었음.

- 8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4% 적을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천도계가 전년 대비 8%, 유모계는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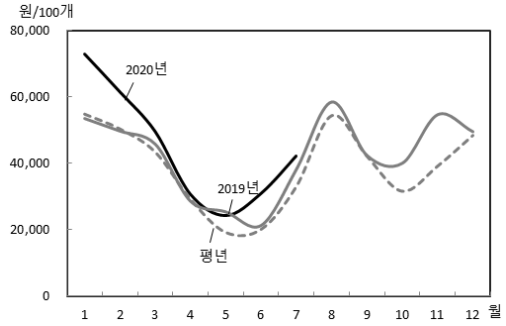
• 2020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적은 20만 1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4월 저온피해, 7월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하여 단수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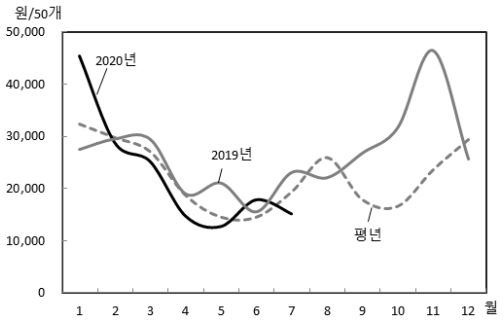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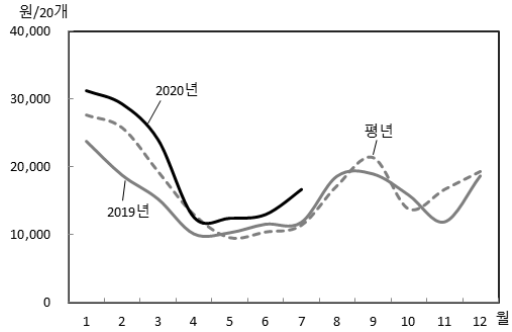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연옥(superiorl@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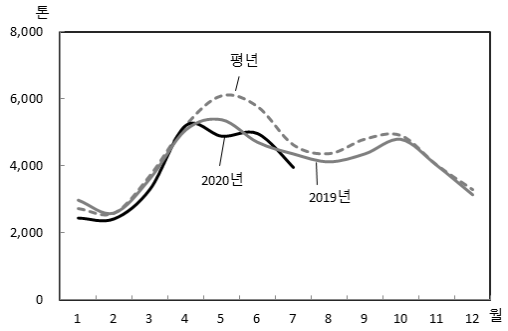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3만 700원, 5월 2만 4,300원, 6월 3만 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8,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였음.
  - 4월 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 많았고, 5월은 5% 적었으며, 6월에는 4% 많아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4월 1만 4,700원, 5월 1만 2,700원, 6월은 1만 7,8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5,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음.
  - 2/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작황이 좋아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1% 높은 상품 100개에 4만 2,200원이었음.
  - 8~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과 충청지역의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됨.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5% 낮은 상품 50개에 1만 5,100원이었음.
  - 8~9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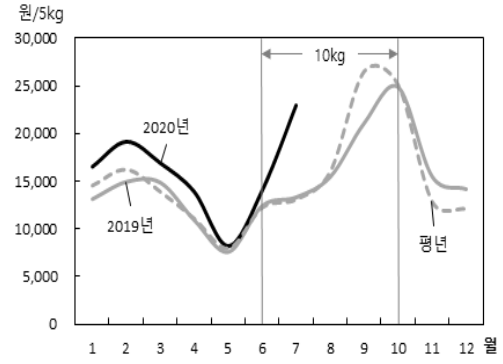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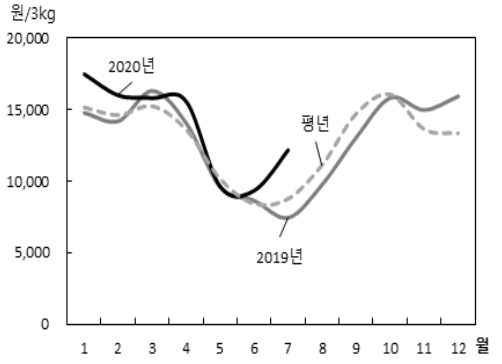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2,500원, 5월 1만 2,400원, 6월에는 1만 3,0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1만 2,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였음.
  - 2/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40% 높은 상품 20개에 1만 6,700원이었음.
  - 8~9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출하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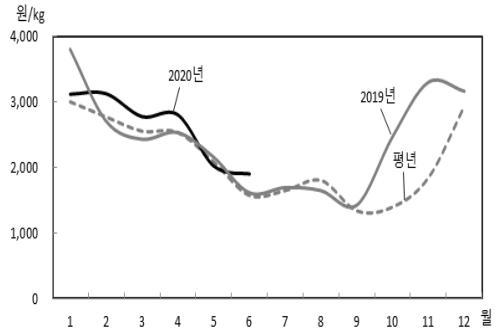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4월에 13,900원/5kg, 5월 8,200원/5kg, 6월 14,000원/10kg으로 전년 대비 평균 17% 상승함.
  - 출하면적 감소와 기상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2분기 반입량이 전년 대비 6% 감소하였기 때문임.
  - 4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15,600원/3kg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함. 이는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5~6월 가격은 9,500원/3kg으로 전년 대비 5% 상승하였는데,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양호해 소비가 원활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장마 영향으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73% 높은 2만 2,900원/10kg이었음.
  - 8~9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출하면적이 줄었고, 7월 장마 영향으로 과 크기가 작은데다 수정·착과도 불량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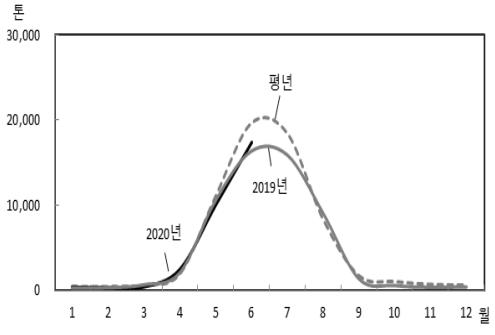
- 7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생육 부진으로 반입량이 줄면서 전년 대비 64% 상승한 12,200원/3kg이었음.
- 8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임. 출하면적이 증가하나, 장마 영향으로 단수가 줄 것으로 예측됨. 9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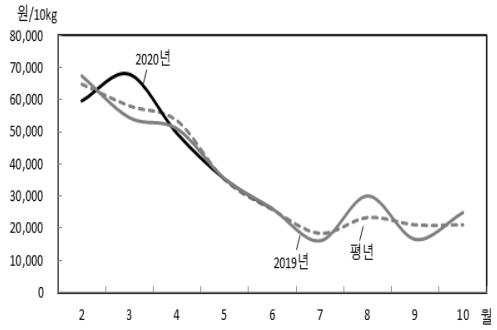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4월 2,800원, 5월 2,020원, 6월 1,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 높은 2,240원이었음.
  - 수박 2/4분기 반입량은 정식면적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여 5% 높은 상품 1kg에 1,770원이었음.
  - 8월 수박 출하량은 타 작목 전환, 조기 수확 등으로 출하면적이 감소하였고, 기상 악화로 작황도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9월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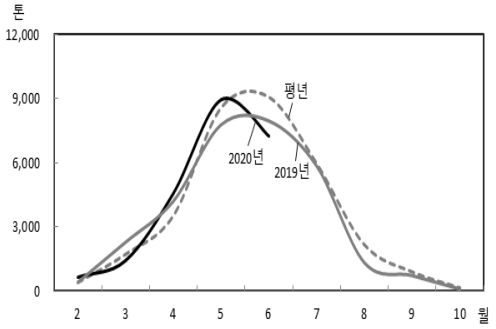
면적은 충청지역에서 수박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으나 영남·호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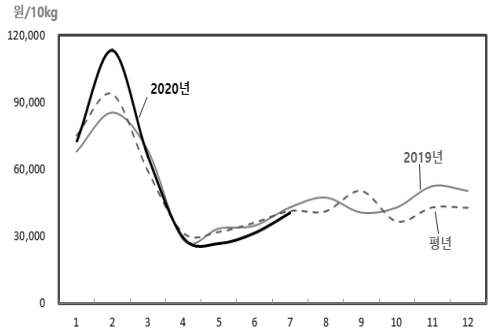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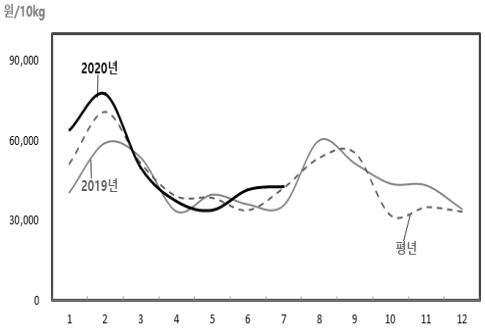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기준 4월 2,800원/kg, 5월 2,020원/kg, 6월 1,900원/kg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 낮은 36,910원이었음.
  - 참외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전년 대비 6% 감소하여 29% 상승한 상품 기준 10kg 상자에 20,500원이었음.
  - 8~9월 참외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7월 기상여건 악화(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로 전년 대비 작기를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5.6.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0년 2/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4월 29,300원/10kg, 5월 26,800원, 6월 31,4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32,100원) 대비 9% 낮은 29,100원이었음.
  - 2/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음. 이는 경남지역의 청양계풋고추 작황이 양호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4월 37,300원/10kg, 5월 34,000원, 6월 41,7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36,300원) 대비 4% 높은 37,7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2/4분기 반입량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주산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4% 적었음.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전년 대비 6% 낮은 40,500원/10kg이었음. 7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1% 높은 42,800원/10kg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시세가 전년 대비 하락한 이유는 작년 대비 정식면적이 늘었고, 작황이 부진했던 작년 대비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일반풋고추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정식면적이 감소하여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함.
– 8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강원지역 정식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일반풋고추는 작황이 매우 부진했던 작년 대비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면적은 강원지역 정식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일반풋고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6. 축산[6)]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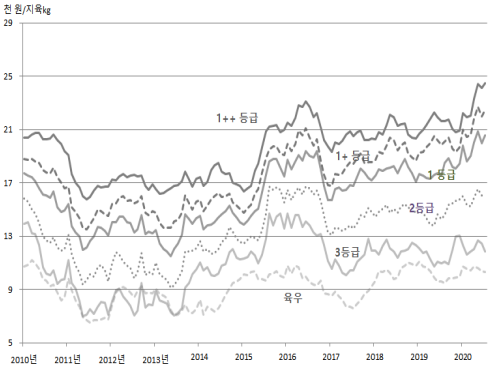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9년				20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p)
사육 농장수	96	95	94	94	94	93
총 마릿수	3,059	3,242	3,269	3,237	3,197	3,330
가임 암소	1,402	1,426	1,480	1,491	1,462	1,485

주: 2020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서강철(softvalue@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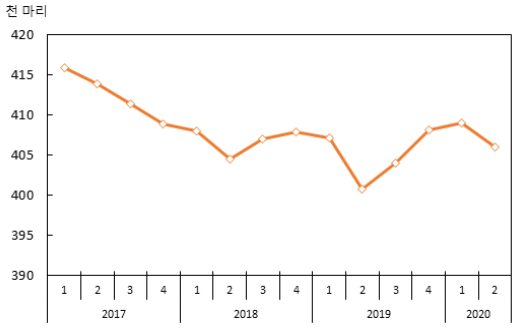
- (한육우) 2020년 2/4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319만 7천 마리)보다 4.1% 증가한 330만 3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24만 2천 마리보다 2.7% 증가).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317만 5천 마리, 육우 15만 4천 마리
    * 가임암소 마릿수 148만 마리(전년 동월 142만 마리 보다 4.2% 증가)
  -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19,258원/지육kg보다 5.1% 상승한 20,245원이었음(전년 동기 17,519원보다 15.7%, 평년 동기 17,418원보다 16.2% 상승).
- (한우) 2020년 3/4분기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11만 6천 마리)보다 5.7% 증가한 329만 4천 마리로 전망됨.
  - 3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상승한 20,500~21,5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9년(A)	2020년	2020년(B)	B/A
사육 마릿수	9월 311만 6천 마리	6월 317만 5천 마리	9월 318만 3천 마리	5.7%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3분기 18,013원	2분기 20,245원	3분기 20,500~21,500원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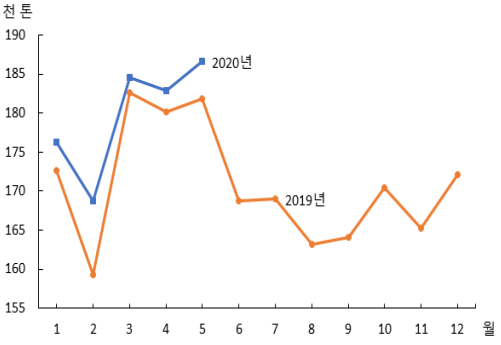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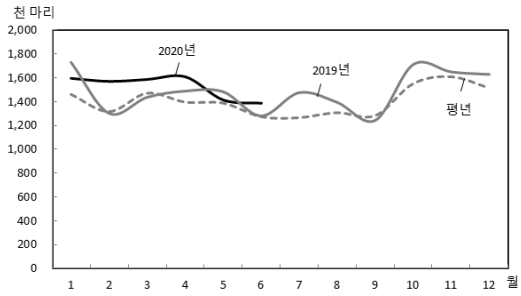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20년 2/4분기 동향
  - 2020년 6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40만 6천 마리였음.
  - 2020년 4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18만 3천 톤임.
  - 2020년 5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18만 7천 톤임.

- 2020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9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많은 40만 3천~40만 5천 마리로 전망됨.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0.5~0.9% 증가한 49만 9천~50만 1천 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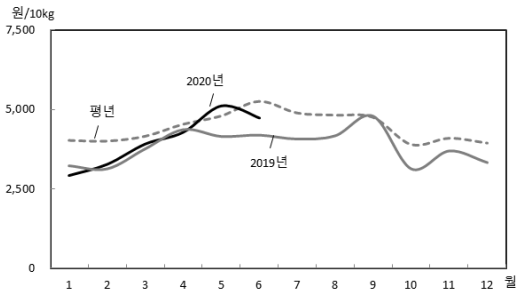
6.3. 돼지

도축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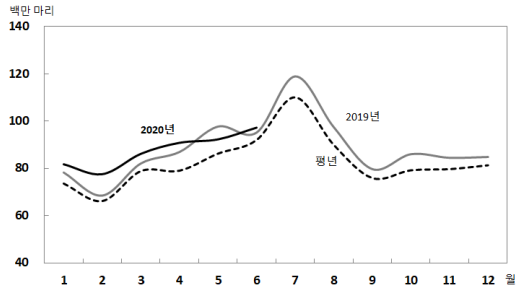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0년 2/4분기 동향
  - 2020년 6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4.9% 감소한 96만 3천 마리였음. 모돈 감소에 따른 자돈 생산 감소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4.7% 감소한 1,155만 마리임(이력제).
  - 2/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일령 단축으로 도축이 늘어 전년 동기간(425만 마리)보다 증가한 440만 마리였음.
  -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간(4,243원/kg)보다 상승한 4,712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자돈 생산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하나, 작업일수가 많아 전년보다 증가한 419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8만 5천 톤으로 전망됨.
  - 3/4분기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세로 전망됨(7월 4,911원, 8~9월 4,700~4,900원) 단, 하반기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른 수요 상승 요인이 사라질 경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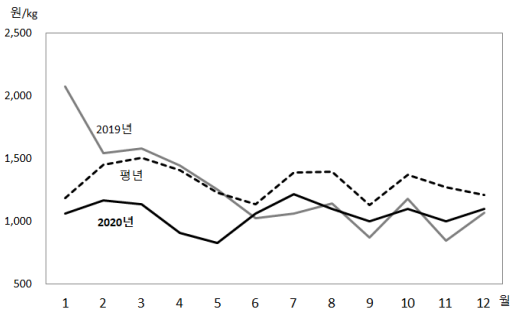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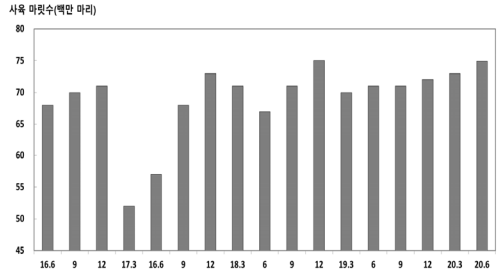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20년 2/4분기 동향
  - 2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도태 증가로 전년보다 3.9% 감소한 478만 마리로 추정됨.
  - 2분기 도계 마릿수는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이 늘었으나 삼계 생산이 줄어 전년과 비슷한 2억 8천만 마리였음. 그러나 평년(2억 5천 만 마리)보다는 9.1% 많았음.
  - 2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육계 도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상승한 933원/kg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분기 육계 병아리 생산량은 2019년 하반기 종계 입식 증가로 5~7월 성계 사육이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3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입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삼계 도축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7% 감소한 2억 9천 1백만 마리로 예상됨.
  - 7월 육계 산지가격은 도계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3.8% 상승한 1,211원/kg이었음. 8~9월 육계 산지가격은 도계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8월: 1,100~1,300원, 9월: 1,000~1,2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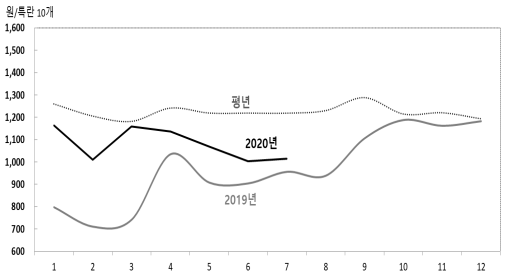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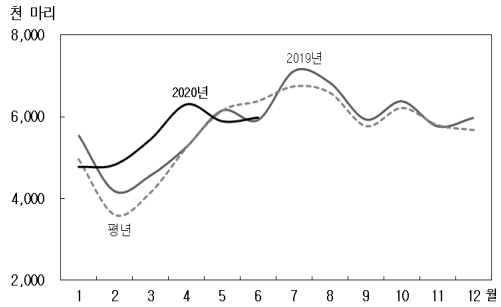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 2/4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4.9% 증가한 7,492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0.7% 감소한 5,410만 마리임.
  - 6월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7.7% 증가한 22만 톤이었음. 그 중 산란초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4.6%, 산란 중기 15.1%, 산란 말기가 7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4~6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상승한 1,069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이었음.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8~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생산량 감소로 8~9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7월: 1,014원/특란 10개, 8월: 950~1,100원, 9월: 1,000~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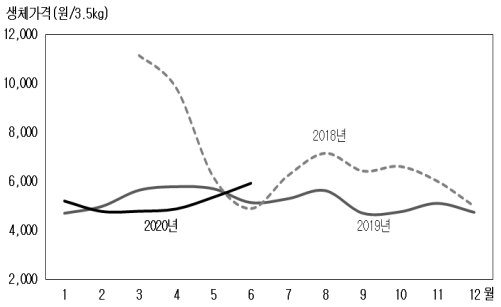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동향
  -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930만 3천 마리임. 육용 오리는 전년보다 8.1% 감소한 862만 5천 마리이고, 종오리는 18.5% 감소한 67만 8천 마리임.
  -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2/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1,817만 6천 마리임. 도압 마릿수 증가로 2/4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8% 하락한 5,376원임.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7~9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육용 병아리 입식 감소로 도압 마릿수가 줄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8~9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는 상승한 6,500~7,000원/3.5kg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7)]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4	77.0
	4~5명 이하	43	13.0
	6명 이상	33	10.0

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연구원이 옥소연 연구원(syock1101@krei.re.kr)「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 이하 19.7%, 300m2 초과 9.1%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7.0%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0년 2/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39(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71) 대비 하락하였고, 전 분기(1.90)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9년 2/4분기	2020년 1/4분기	2020년 2/4분기
2.71	1.90	**2.39**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4~6월(코로나19 확산 후) 음식점 매출은 2019년 4~6월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85.7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 후 매출이 14% 수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3/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0년 2/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92.6으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0년 2/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3.6% 감소하였고, 전 분기보다 2.7% 증가함.
  - 감자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였고, 전 분기보다 0.4% 감소함.

곡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33.6	2.7	-1.6	0.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4분기)에 비해 각각 29.3%,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29.3	-1.9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0년 1/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7%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22.7% 감소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8.6% 감소하고, 양념채소 월평균 구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0.1~12.1% 감소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6.6	건고추	-0.1
배추김치	-7.5	고춧가루	-1.4
무	-8.6	마늘	-4.3
당근	-4.8	양파	-12.1
양배추	-3.2	대파	-4.8
소계	-30.7	소계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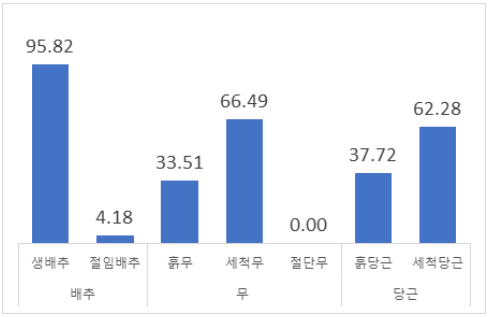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2%), 배추(94.4%), 양파(87.4%)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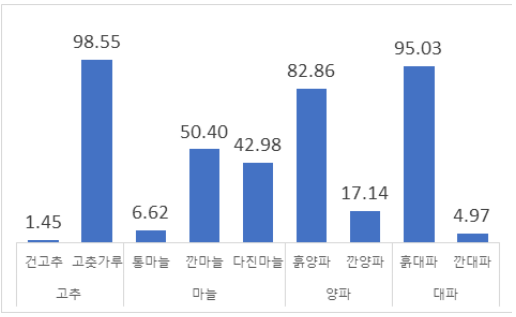
〈엽근채소〉

단위: %



〈양념채소〉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2/4분기		2020년 2/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6	0.4	99.40	0.60
	배추	98.7	1.3	97.47	2.53
	배추김치	13.4	86.6	11.24	88.76
	당근	62.4	37.6	58.16	41.84
	양배추	98.7	1.3	88.73	11.27
양념채소	건고추	47.4	47.4	81.58	18.42
	고춧가루	56.8	43.2	53.01	46.95
	통마늘	88.4	11.6	74.09	25.91
	깐마늘	61.0	39.0	58.30	41.70
	다진마늘	63.1	36.9	55.56	44.44
	흙양파	91.5	8.5	90.84	9.16
	깐양파	53.0	47.0	51.74	48.26
	대파	99.5	0.5	99.67	0.3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2/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88.7%), 깐양파(48.2%), 고춧가루(46.9%), 다진마늘(44.4%), 당근(4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흙양파는 전체 구매의 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건거추, 대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산의 비중이 증가함.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0년 2/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0.7%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6.8%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

하겠다는 응답은 38.6%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5.0%로 조사되었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73.9%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감소(25.1%)'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고객 감소(72.9%)'가 가장 높았음.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는 '안 함(%)'이 가장 높았음.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한 중국산 김치 소비량

단위: %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증가	비슷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감소
0	73.9	26.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

단위: %

고객 감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
72.9	22.9	2.1	2.1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안 함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단무지 제공	국내산 배추김치 (겉절이 포함) 제공
79.2	2.1	4.2	14.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3/4분기)에 비해 각각 %, %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전년 동기 대비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 증감률 소계는 큰 차이가 없지만 건고추의 경우 % 감소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5.3	건고추	-0.1
배추김치	-6.3	고춧가루	-1.3
무	-7.9	마늘	-4.4
당근	-4.3	양파	-11.9
양배추	-3.3	대파	-4.6
소계	-27.1	소계	-22.3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0년 2/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함.
  - 풋고추와 오이,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5%, 2.9%, 1.2% 감소하였음.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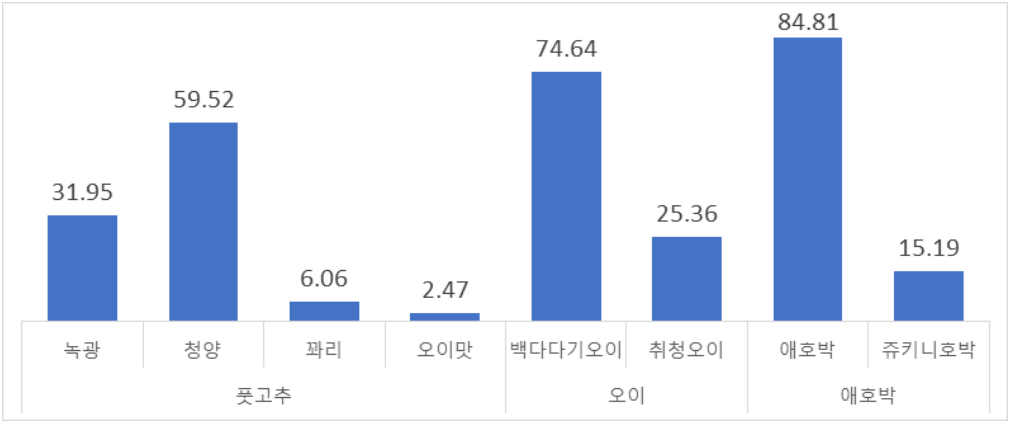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1.5	-2.9	-1.2	-5.6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1.9%), 꽈리고추(6.0%), 오이맛고추(2.4%)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25.3%)보다는 백다다기오이(74.6%)를, 호박은 쥬키니 품종(15.1%)보다는 애호박(84.8%)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3/4분기)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2%,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이의 경우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1.5	-3.0	-1.2	-5.7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20년 2/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1%로 대폭 감소함.
  -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5.8%, 22.0%, 6.9%, 1.5% 감소하였고 닭고기는 0.1% 증가함.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6.9	-22.0	0.1	-1.5	-125.8	-156.1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2/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68.94%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미국산은 4.3%p 증가한 반면, 호주산 구입 비중은 2.6%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5.3%로 전년 동기 대비 4.8%p 감소하였으며, 미국산, 칠레산, 캐나다산은 각각 3.0%p, 0.8%p, 0.5%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36%, 1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9년 2/4분기					2020년 2/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0.8	71.6	17.6			9.15	68.94	21.91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70.2	8.7	6.8	10.9	2.2	65.34	11.72	7.33	11.72	1.72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82.7	6.9	9.4	1.0		83.68	6.84	8.42	1.05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96.7	3.3				100.00	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3/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3/4분기)에 비해 14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의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16.5%, 22.1%,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닭고기의 경우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5.7	-22.1	0.1	-1.6	-116.5	-145.8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0년 2/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39.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9.3%)',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18.2%)',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4.5%)',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7.9%)', '단가가 저렴해서(0.2%)'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39.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9.3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18.2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4.5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7.9
단가가 저렴해서	0.3
소계	1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2/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25.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3.9%)',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20.9%)',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7.0%)',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10.9%)'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25.8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3.9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0.9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7.0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10.9
소계	98.5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15.8%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방울토마토가 4.2%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50.0%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방울토마토	4.2	참외	1.8
수박	3.9	바나나	1.2
오렌지	2.7	파인애플	0.9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0%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50.0
손님들이 선호해서	18.75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12.5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6.25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어서(생산되지 않는 계절이어서)	6.25
국내산의 대량 납품 불가(안정적 조달의 어려움)	6.25
소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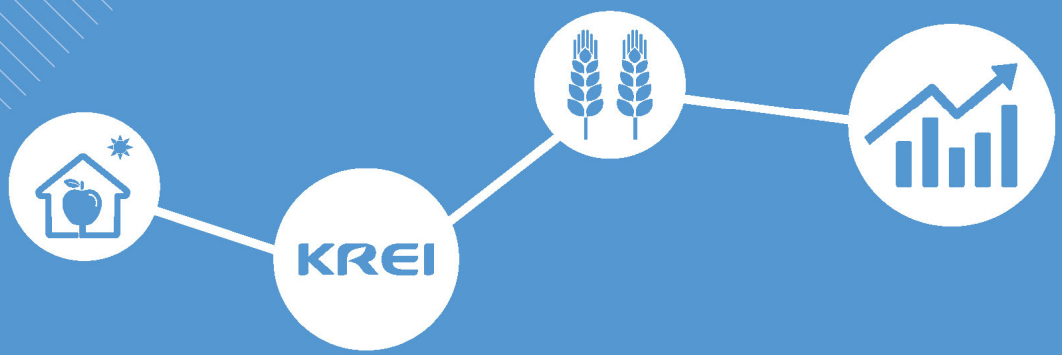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코로나19 확산 후(2020년 4~6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4~6월)보다 약 15%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월평균 구매량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19 확산 후 쌀, 채소 및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90.1, 축산물 월평균 구매량은 84.7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니오' 응답이 96.4%로 '예(3.6%)'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2.7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9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 양념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7%, 22.7% 감소하고, 과채류와 축산류는 각각 5.6%, 156.1%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 후(2020년 4~6월)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2~3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산 후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다진마늘, 당근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중국산 김치 소비량은 비슷하다는 의견이 73.9%로 가장 높았고, 감소했다는 의견은 26.1%에 달하였다. 감소의 이유로는 고객 감소가 72.9%로 가장 높았으며, 79.2%가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이며, 쇠고기의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39.8%)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9.3%), 인력 부족(18.2%), 재고관리 철저(14.5%)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업체의 25.8%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3.9%),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0.9%),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7.0%),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10.9%) 순으로 조사됨.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15.8%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방울토마토, 수박, 오렌지, 참외, 바나나, 파인애플 순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❶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❷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❸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김상효*, 문동현**, 지정훈***, 김민선****

1. 2020년 2~4월 음식점 매출액 동향 분석

1.1. 음식점 매출액 변화 추정 방법

- 네이버 데이터랩(DataLab)을 통해 비씨카드社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음식점 매출액 정보[1]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음식점 매출액 비중에 대한 정보(가중치로 활용)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음식점 매출액 감소와 식재료 구매액 감소분을 추산
  - 비씨카드 사용자들의 사용 금액이 전체 카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26% 수준이며, 비씨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이용 행태는 전체 카드 매출액을 대표하기에 일반적인 행태를 보임.[2]
  -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최근 13개월 동안의 음식점 매출액 변동을 상대적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dhmoon032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anchunly@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minsun@krei.re.kr)

1)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는 비씨카드 사용자들이 매일 발생시키는 수백만 건의 거래실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음식점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시·군·구별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나, 분석의 필요성이나 자료의 품질을 고려할 때 시·도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비씨카드社 담당자로부터 확인함. 비씨카드社에서는 자체적으로 카드社들끼리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한국은행 및 여신협회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도 확인하고 있는데, 전체 카드社 매출액과 비씨카드社 매출액 사이에는 트렌드상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함. 그럼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카드사별로 시기, 지역,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임.

지수화하여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변화율을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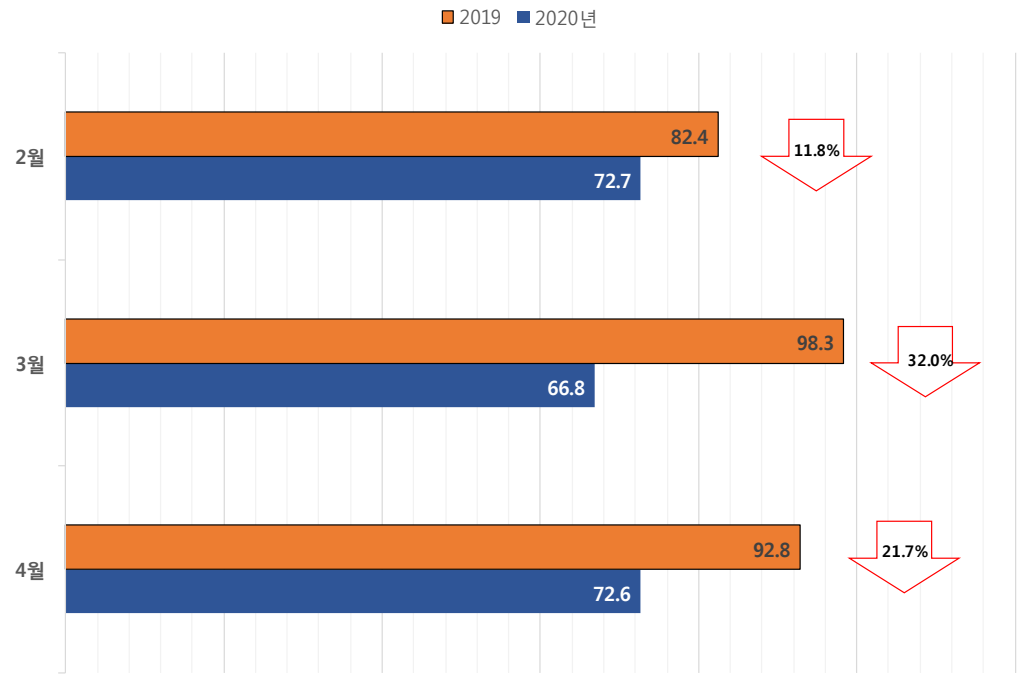
- 전국 음식점 매출액의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외식업 매출액 중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필요하여, 통계청 2016~2018년 '서비스업 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1.2. 음식점 매출액 변화(비씨카드 매출액 기준 지수[3])

- 2020년 전국 기준 월별 음식점 매출액 지수(13개월 내 최대=100)는 2월 72.7, 3월 66.8, 4월 7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0% 감소
  - 2020년 2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72.7로 전년 동월(2019년 2월) 82.4에 비해 11.8%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2020년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음식점 매출액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3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66.8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전년 동월(2019년 3월) 매출액 지수인 98.3보다 32.0%나 감소한 수치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는 소비 행태가 반영되면서 2월 매출액 감소폭보다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올해 3월 외식업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던 외식업에서의 경영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임.
  - 한편, 2020년 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72.6을 기록하여 2019년 4월의 92.8에 비해 21.7% 감소하였음. 전월인 3월보다는 매출액 감소폭이 다소 작아지긴 했지만, 4월에도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 외식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BC카드 사용자가 매일 결제하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이며, 카드 사용금액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값임(네이버 데이터랩[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 원자료 제공, 검색일: 2020. 5. 16.). 최근 13개월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달의 매출을 100으로 설정하여 월별 매출액을 지수화함.

2~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와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전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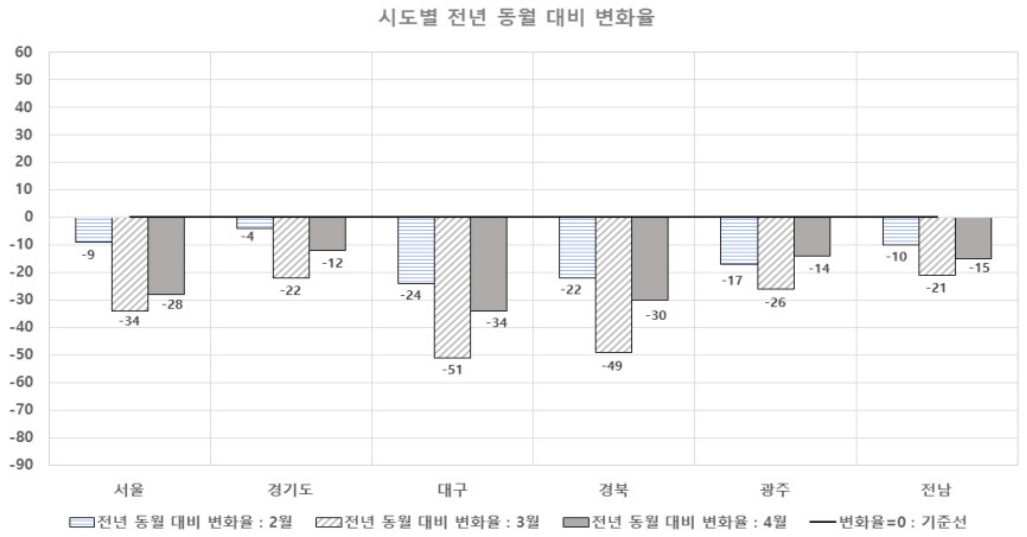
주: 전국 기준 음식점 매출액 변화율은 비씨카드社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음식점 매출액 정보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음식점 매출액 비중에 대한 정보(가중치로 활용)를 활용하여 산출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社 원자료 제공, 자료 수집일: 2020. 5. 16.

- 대구/경북 지역의 음식점 매출액 감소폭은 3월 기준 50%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및 광주/전남 지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추정
  - 2020년 4월 기준, 음식점 매출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대구(−33.7%), 경북(−30.1%) 순이며, 가장 작게 감소한 시도는 경기(−11.7%), 광주(−14.0%), 전남(−14.8%) 순임.[4] 음식점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2020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구 및 경북 지역의 감소율은 50%를 육박하는 수준임.

4) 이 절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과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대구·경북 지역, 지리적 영향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주요 시·도별 전년 동월 대비 음식점 매출액 변화율(2~4월)

단위: %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社 원자료 제공, 자료 수집일: 2020. 5. 16.

1.3. 업종별 매출 변화[5)]

- 4월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음식점 매출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한정식(−70.0%), 주점/호프(−62.9%), 유흥주점(−52.4%) 순이며, 가장 작게 감소한 업종은 bar(−11.1%), 베이커리(−11.5%), 종합분식(−18.1%) 순임.
  - '음식점 일반'에 해당하는 업종의 2월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3월과 4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한정식 업종에서의 매출액은 가장 크게 감소(3월 기준 -73%)하여 여전히 고전 중임.
  - 대부분의 업종에서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은 4월이 되면서 3월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주점/호프와 유흥주점에서의 매출액은 3월보다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보임. 이는 이 업종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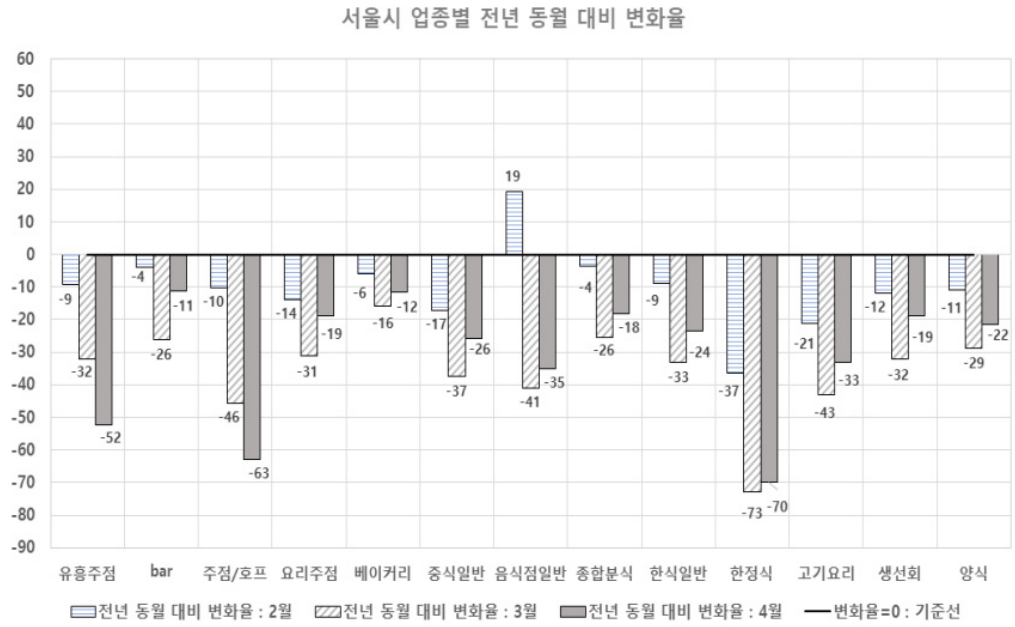
5) 이 절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대구광역시의 음식점 업종별 매출 변화를 소개함.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3월보다는 4월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3월보다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크게 개선된 업종은 bar(15.0%p), 생선회(13.0%p), 요리주점(12.0%p) 등임.

서울특별시 음식점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2~4월)

단위: %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社 원자료 제공, 자료 수집일: 2020.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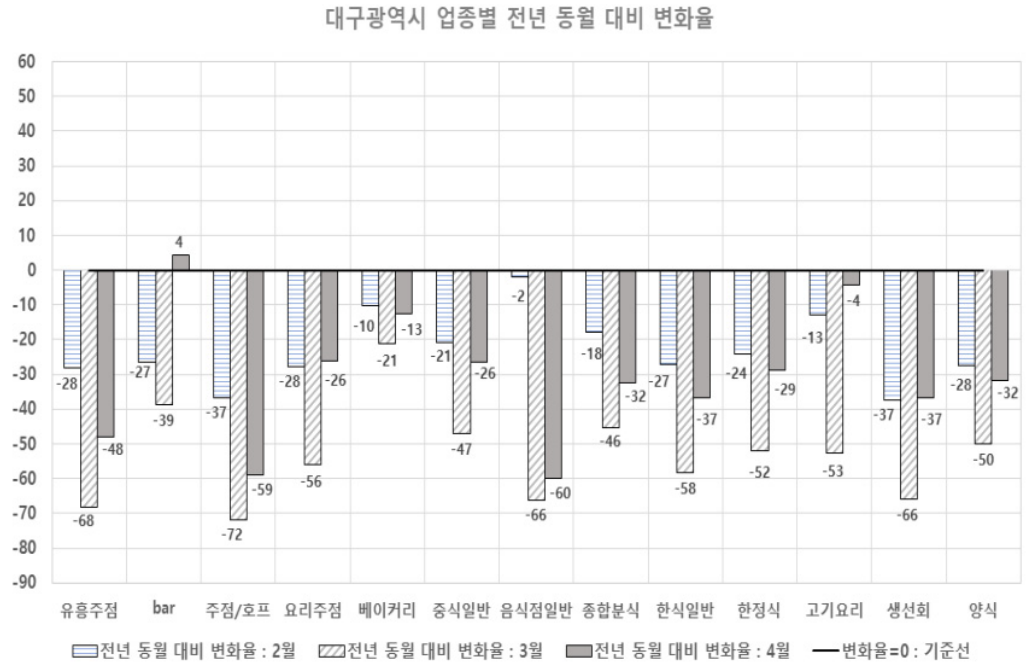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점 매출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음식점 일반(−60.0%)', 주점/호프(−59.0%), 유흥주점(−47.9%) 순이며, 가장 작게 감소한 업종은 bar(4.2%), 고기요리(−4.1%), 베이커리(−12.5%), 요리주점(−26.2%) 순임.
  - '음식점 일반'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3월에 크게 감소하고 난 후, 4월까지도 매출액 회복이 더딘 상황임. 대구광역시 bar 업종의 경우 4월에 들어서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한 특징을 보임.

- 대부분의 업종에서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은 4월이 되면서 3월보다는 개선되었으나, 그 개선의 폭이 가장 작은 업종은 '음식점 일반(6.0%p)'과 베이커리(8.0%p) 순임.
-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3월보다는 4월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3월보다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크게 개선된 업종은 고기요리(48.4%p), bar(42.8%p), 요리주점(29.6%p) 등임.

대구광역시 음식점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2~4월)

단위: %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社 원자료 제공, 자료 수집일: 2020. 5. 16.

1.4. 전국 음식점 매출 변화로 인한 식재료 사용 물량 변화

-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비씨카드社 음식점 시·도별 업종별 매출액 지수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2016~2018년 원자료 시계열 모형분석을 통해 2019년 외식업 연매출액뿐만 아니라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시·도별로 음식점 업종별 월별 매출액을 추정함.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2018년 원자료 분석을 통해 외식업 업종별로 매출액에서 전체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 업종의 식재료비 전체에서 품목군별 식재료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
  - 위에서 추정·산출된 두 종류의 정보를 활용하여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6]) 감소한 음식점 매출로 인해 식재료 구매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최종적으로 추산함.

- 음식점 업종별 월별 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2020년 2~4월 전국 음식점 매출액은 2019년 동 기간 대비 약 21%(6조 9,117억 원) 감소한 25조 2,454억 원 수준이었음.
  - 기타 주점업의 2~4월 매출액 감소율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킨전문점(30.3%)이 뒤를 이었음.
  - 2~4월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한식 관련 업종으로 2019년 2~4월 매출액이 15조 4,411억 원에서 2020년 2~4월 11조 9,586억 원으로 3조 원 이상 매출액이 감소함.

6)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음식점 매출액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가정하고 분석함. 하지만, 소비행태 및 소비자 선호의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 식재료 및 외식 물가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음식점 매출액에서의 자연 변동 또한 존재할 수 있음.

음식점 업종별 월별 매출액 변화 추정 결과(2~4월 기준)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감소율 평균 (2~4월)
업종	2월	3월	4월	소계	2월	3월	4월	소계	
한식	4,695	5,508	5,239	15,441	4,057	3,700	4,201	11,959	22%
중식 음식점업	462	524	491	1,476	399	371	414	1,184	19%
일식 음식점업	356	412	382	1,150	292	268	313	873	24%
서양식 음식점업	359	406	394	1,159	314	301	329	944	18%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69	115	109	292	76	61	64	201	26%
제과	488	555	526	1,569	447	480	492	1,419	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505	573	543	1,621	462	497	509	1,468	9%
치킨전문점	389	472	443	1,304	304	274	322	900	30%
분식 및 김밥전문점업	400	473	450	1,323	377	361	391	1,129	14%
그 외 기타음식점업	171	353	317	841	207	176	167	550	26%
일반유흥주점업	219	251	234	705	196	168	161	525	25%
무도유흥주점업	32	37	35	104	29	25	23	77	26%
기타 주점업	720	829	768	2,318	614	486	458	1,558	32%
비알코올음료점업	903	1,028	923	2,854	826	782	852	2,460	13%
전체	9,767	11,536	10,853	32,157	8,601	7,949	8,695	25,245	21%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 매출액 지수(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社 원자료 제공, 검색일: 2020. 5. 16.),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2016~2018 원자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2018년 원자료를 분석.

- 2020년 2~4월 외식업 매출액 감소로 인해 주요 식재료 품목군별 구매액도 감소함. 2019년 동 기간 대비 2020년 2~4월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줄어듦.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업종에서 줄인 식재료 구매액이 약 1조 2,4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주점업(2,481억 원), 치킨전문점(1,497억 원) 순으로 나타남.
  -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육류가 6,258억 원으로 구매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5,219억 원), 채소류(3,969억 원), 수산물(2,955억 원) 순임.

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품목군별 구매액 감소 추산 결과(2~4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품목군								합계	비중
업종	쌀	곡류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한식	192,282	53,320	238,638	6,721	377,939	169,225	150,766	57,684	1,246,577	52.3%
중식 음식점업	10,764	9,145	19,909	762	23,148	15,813	11,622	4,001	95,164	4.0%
일식 음식점업	11,461	2,516	15,002	1,211	10,436	37,271	10,529	4,752	93,178	3.9%
서양식 음식점업	7,118	4,146	12,439	415	20,939	8,154	12,232	3,663	69,106	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922	1,920	5,733	223	6,763	3,423	4,703	2,115	27,802	1.2%
제과	645	9,280	4,913	3,275	1,092	149	27,492	2,729	49,575	2.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694	3,521	7,636	843	9,074	2,727	20,628	4,512	49,636	2.1%
치킨전문점	599	2,544	13,321	449	105,671	1,048	20,356	5,688	149,676	6.3%
분식 및 김밥전문점업	12,955	4,175	12,955	61	6,815	3,991	15,288	5,219	61,460	2.6%
그 외 기타음식점업	6,143	6,794	16,102	652	14,240	10,052	29,877	9,121	92,981	3.9%
일반유흥주점업	742	228	5,194	8,505	3,767	3,539	31,109	3,996	57,081	2.4%
무도유흥주점업	181	31	756	1,267	425	945	4,031	244	7,880	0.3%
기타 주점업	9,989	3,451	42,409	11,208	45,178	39,134	74,877	21,845	248,091	10.4%
비알코올음료점업		243	1,861	16,182	294	41	108,346	6,589	133,556	5.6%
전체	256,495	101,316	396,869	51,774	625,782	295,513	521,856	132,158	2,381,764	100%
비중	10.8%	4.3%	16.7%	2.2%	26.3%	12.4%	21.9%	5.5%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 매출액 지수(www.datalab.naver.com, 비씨카드社 원자료 제공, 검색일: 2020. 5. 16.),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2016~2018 원자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2018년 원자료를 분석.

2.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식재료 구매 감소 분석

2.1. 미사용 물량 추정 방법

- 코로나19에 따라 각급 학교들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2020학년도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김.
  - 교육부는 4차례의 걸친 휴업명령과 온라인 개학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단계적·순차적 개학을 준비하던 가운데, 5월 10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5월 13일 고3 및 중3 학생들부터 예정되었던 등교개학 일정을 일주일 연기함.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 조정

구 분	단계	등교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1차 휴업명령(3.9.~3.6., 1주)	-	3.9.(월)	전체	전체	전체
2차 휴업명령(3.9.~3.20., 2주)	-	3.23(월)	전체	전체	전체
3차 휴업명령(3.23.~4.3., 2주)	-	4.6.(월)	전체	전체	전체
4차 휴업명령(4.6.~4.8., 3일)	-	4.6.(월)	전체	전체	전체
단계적 온라인 개학	1단계	4.9.(목)	고3	중3	-
	2단계	4.16.(목)	고1,2	중1,2	초3~4
	3단계	4.20.(월)	-	-	초5~6
1차 단계적·순차적 등교	우선단계	5.13.(수)	고3	-	-
	1단계	5.20.(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27.(수)	고1	중2	초3~4
	3단계	6.1.(월)		중1	초5~6
2차 단계적·순차적 등교	우선단계	5.20.(수)	고3	-	-
	1단계	5.27.(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6.3.(수)	고1	중2	초3~4
	3단계	6.8.(월)		중1	초5~6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17., 2020. 3. 31., 2020. 5. 4., 2020. 5. 24.)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 2020학년도 등교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급식도 전면 중단되었음.
  -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용 식재로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심화되었음.

- 본 분석에서는 2020학년도 학교급식[7]이 5월까지 전면 중단됨을 가정하였고, 2019학년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급식 분야의 소비량이 2020년 동 기간에 그대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020년도 미사용 물량을 추산한 것임.
  - 학교급식 부문에서의 농식품 소비 분석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e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학교급식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함.[8] eaT 자료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부문에서의 피해를 전반적인 학교급식 부문의 소비물량으로 추산할 수 있음.
  - eaT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의 농식품 소비는 총 18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무게 단위와 부피 단위의 제품으로 공급됨. 본 분석에서는 우유류의 경우 1L을 1.05kg으로, 다른 품목류는 1L을 1.00kg으로 가정하여 무게단위 공급량과 부피단위 공급량을 합산하여 추산하였음.

7) 2018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 실시 중임. 이 가운데 98%는 직영급식, 2%는 위탁급식의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음(교육부 보도자료, 2018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8)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학교들은 지역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함(황윤재 외 2019). 지역단위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자료는 입수가 어려워, 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자료를 기초로 전국 단위 소비물량을 추산하였음. eaT 자료가 전국 단위 학교급식의 농식품 식재료 구매와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됨. aT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은 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된 물량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T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 기업 간 거래시스템,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소상공인 직거래시스템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 B2B) 형태를 지원함. eaT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급 학교들이 어떤 품목의 농식품을 언제(연도별, 월별),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물량을 구매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음.

2.2. 학교급식 식재료 감소 영향

- 학교급식용 식재료 약 14만여 톤이 학교에 납품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류와 채소류, 곡류, 어패류가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류인데, 이들 품목류를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육류는 약 16,567톤이 미사용되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1,677억 원에 해당함.
  - 채소류의 미사용량은 약 25,894톤이며, 곡류 22,869톤, 우유류 21,984톤, 육류 16,567톤의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적게 납품되는 품목류는 버섯류와 견과/종실류로 분석됨.

코로나19 발생과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 미사용 물량 추정치(2020년 3~5월)

대분류 품목	3~5월 식재료 미사용 추정치	
	미사용량(톤)	소비 감소액 추정치(백만 원)
곡류	22,869	82,918
감자	3,342	13,196
당류	1,537	3,463
두류	2,768	11,368
견과/종실류	713	6,335
채소류	25,894	99,702
버섯류	994	7,273
과실류	14,174	41,697
육류	16,567	167,720
난류	2,032	8,168
어패류	5,819	68,808
해조류	2,567	8,346
우유류	21,984	20,448
유지류	2,465	13,640
음료/주류	4,029	4,394
조미료류	3,799	25,989
조리가공류	9,161	48,117
기타	142	904
합계	140,856	632,486

주: 소비 감소액 추정치는 eaT 데이터에서 제공한 2019년도 품목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품목별로 계산한 후 대분류 품목 기준에 따라 합산한 것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eaT)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 학교급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목류는 채소류, 우유류, 곡류, 육류, 과실류 순임.
  - 채소류는 3월 약 7,437톤과 4월 약 9,512톤, 우유류는 3월 약 6,620톤과 4월 약 7,688톤, 곡류 3월 약 6,496톤과 4월 약 8,200톤, 육류 3월 약 4,833톤과 4월 약 6,081톤이 학교급식에서 미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산됨.
  - 학교급식 식재료 가운데 가장 적게 소비되는 품목류는 견과/종실류, 버섯류, 당류 등인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남.

학교급식 식재료 월별 미사용 물량 추정치(3~5월)

대분류 품목	식재료 미사용 물량 추정치(톤)			
	3월	4월	5월	3~5월 합계
곡류	6,496	8,200	8,174	22,869
감자	966	1,221	1,155	3,342
당류	444	557	536	1,537
두류	794	1,030	943	2,768
견과/종실류	210	272	230	713
채소류	7,437	9,512	8,945	25,894
버섯류	287	365	342	994
과실류	3,867	4,967	5,339	14,174
육류	4,833	6,081	5,652	16,567
난류	580	748	703	2,032
어패류	1,678	2,174	1,967	5,819
해조류	776	936	855	2,567
우유류	6,620	7,688	7,676	21,984
유지류	659	929	876	2,465
음료/주류	1,023	1,445	1,561	4,029
조미료류	1,068	1,400	1,331	3,799
조리가공류	2,567	3,274	3,320	9,161
기타	30	42	69	142
합계	40,337	50,844	49,675	140,85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eaT)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 품목별 학교급식 소비 감소액 추정치를 살펴보면, 육류가 3월 약 490억 원, 4월 612억 원, 5월 574억 원으로 산출됨.
  - 채소류는 3월, 4월, 5월의 소비 감소액이 각각 약 288억 원, 366억 원, 343억 원으로 추산되었음.
  - 곡류의 월별 소비 감소액은 3월 약 234억 원, 4월 약 303억 원, 5월 약 292억 원으로 나타남. 어패류의 경우 3월 197억 원, 4월 260억 원, 5월 231억 원으로 추산됨.
  - 과실류의 월별 소비 감소액은 각각 약 129억 원, 145억 원, 144억 원 수준임.

학교급식 식재료 월별 소비감소액 추정치(3~5월)

대분류 품목	식재료 월별 소비감소액 추정치(백만 원)			
	3월	4월	5월	3~5월 합계
곡류	23,426	30,298	29,194	82,918
감자	3,902	4,801	4,493	13,196
당류	955	1,283	1,225	3,463
두류	3,330	4,206	3,832	11,368
견과/종실류	1,808	2,395	2,132	6,335
채소류	28,785	36,637	34,280	99,702
버섯류	2,112	2,655	2,506	7,273
과실류	12,871	14,470	14,356	41,697
육류	49,081	61,206	57,433	167,720
난류	2,357	2,988	2,823	8,168
어패류	19,688	26,039	23,081	68,808
해조류	2,400	3,075	2,871	8,346
우유류	5,715	6,896	7,837	20,448
유지류	3,715	5,144	4,781	13,640
음료/주류	1,084	1,621	1,689	4,394
조미료류	7,119	9,754	9,116	25,989
조리가공류	13,247	17,396	17,474	48,117
기타	224	323	357	904
합계	181,819	231,187	219,480	632,486

주: 소비 감소액 추정치는 eaT 데이터에서 제공한 2019년도 품목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품목별로 계산한 후 대분류 품목 기준에 따라 합산한 것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eaT)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3.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외식 수요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농업 생산자뿐 아니라 식재료 납품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씨카드 카드사용 기록을 기준으로 2020년 전국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월 11.8%, 3월 32.0%, 4월 21.7% 감소하였음.
  - 2020년 2~4월 전국 음식점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1%(6조 9,117억 원) 감소한 25조 2,45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2020년 2~4월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줄어듦.
  -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 미사용액은 약 6,325억 원에 이르며, 월별로는 3월 1,818억 원, 4월 2,312억 원, 5월 2,195억 원으로 추산됨.
- 품목별로는 육류와 곡류, 채소류 식재료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임.
  - 음식점으로 납품되는 식재료 구매액 감소는 육류 약 6,258억 원, 곡류(쌀포함) 약 3,578억 원, 채소류 약 3,969억 원으로 추산됨.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액은 육류 약 1,677억 원, 채소류 997억 원, 곡류 약 829억 원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파악됨.
- 출하시기 조절 및 장기 저장이 어려운 과채류와 엽채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 실시 중
  - [공동구매 촉진] 공무원,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 진행, 시·도별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비 및 포장비 지원 추진
  -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대형유통업체 및 친환경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추진
  - [자가격리자 대상 구호꾸러미 공급] 급식용 식자재 공급 피해농가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호물자로 공급
  -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약 499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공급 중임. 현물 배송과 쿠폰 지급 방식으로 실시함.

- 온·오프라인 대체 판로 활성화 지원 중
  - [대체판로 확보 지원] 지역 내 유통업체 및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로의 판로 연결 지원, 지역별 피해물량의 군부대·기업·공공급식 및 유통업체에 대체 공급 시 할인판매 참여 또는 공급단가 하락에 따른 차익의 일부 보전
  - [학교급식용 국산 김치 모바일 판매 지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김치온'과 우체국 온라인 특별 기획전 등을 통해 고품질 국산 김치 판매 지원 등
- 중장기적으로는 외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이외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공급/판매망과 납품처 다각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일부 농가의 경우 외식 및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생산자들이 생산자단체나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납품처를 다각화 하는 등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 육류와 곡류의 경우 저장이 가능하지만 식재료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들 품목류에 대한 관리 및 저장 지원, 판로 개척, 소비 촉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최근 육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이에 맞춰 식재료 미사용분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계획 마련 필요
  -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농식품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등 생산자들에게는 소득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엄진영*

1. 농업노동력 변화

1.1.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세

- 전년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시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시기와 2017년 이후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 1995-2019년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완충역할도 담당함.
  - 1998년과 2008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비농업부문 대량 실업으로 농업부문의 인력유입이 발생하여 완충역할을 하였지만, 일시적 현상이었음. 대부분의 시기에서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2017년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50대 이상으로 농업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때문임. 2013년-2016년 기간과 2016-2019년 기간을 비교하면, 2016-2019년 기간에 50대 이상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표 1).

<표 1> 2013-2016년과 2016-2019년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구분		고용있는 자영자	고용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합계
2013-2016	50대	-2.4	-40.5	-37.8	-1.8	0.8	1.2	-80.4
	60대 이상	1.5	-73.0	-33.5	0.2	-1.4	-8.4	-114.6
2016-2019	50대	1.1	1.2	4.5	1.6	-2.3	-7.1	-1.1
	60대 이상	13.7	59.6	44.7	2.1	3.3	-16.5	10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eom@krei.re.kr)

대구광역시 음식점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2~4월)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1.2. 농업 고용노동력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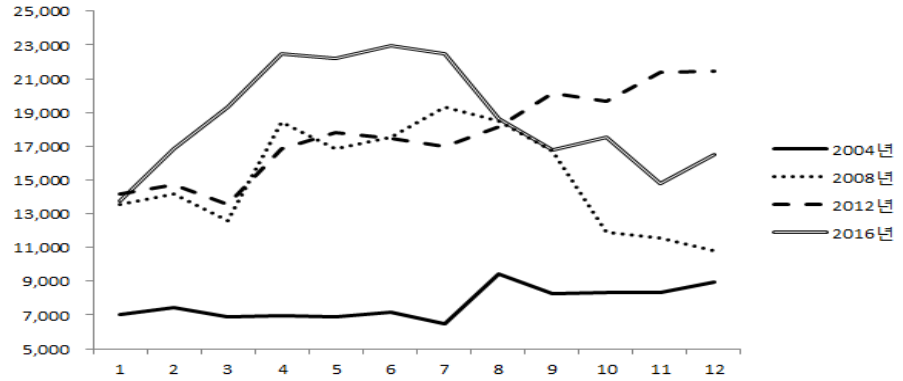
- 농업부문 고용노동력만을 구분해서 변화추세를 보면(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비교·분석) 그림 2와 같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음[2].
  - 전체적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규모화와 만성적인 일손부족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농가 규모화에 따른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함. 일용근로자 감소는 내국인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일용근로자 신규 인력 유입 발생이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함.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하 근로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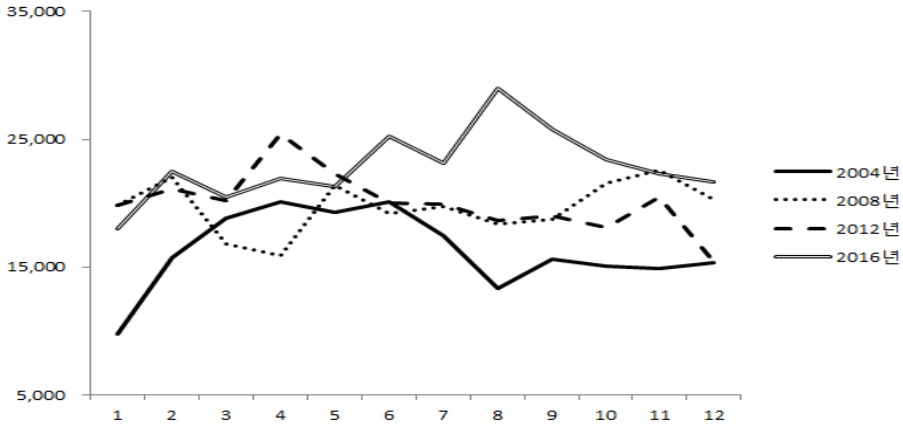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음식점 업종별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2~4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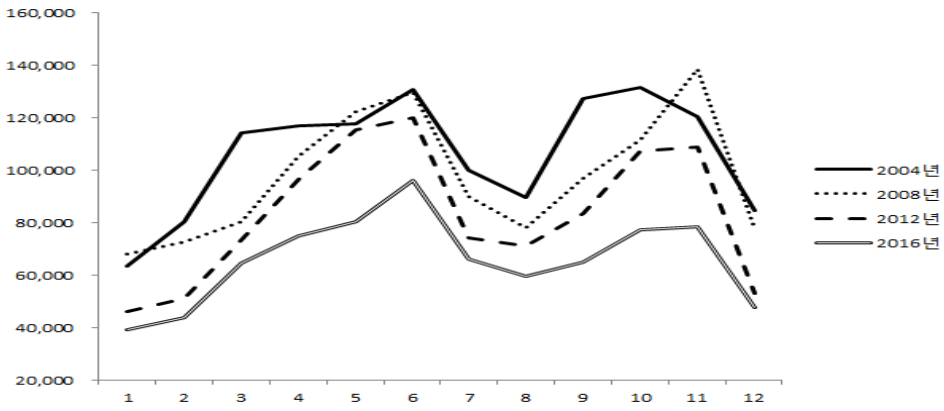
〈상용〉



〈임시〉



〈일용〉



- 201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따르면, 논벼 농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는 채소·산나물, 과수, 특용·약용 품목에서 가장 많이 고용됨.
  - 2015년에 농업부문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미등록 외국인이 농업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수(내국인, 외국인) (2015년)

단위: 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중	내국인	외국인(D)	외국인 비중
채소산나물(노지)	14,759	1,982	11.8	8,014	2,658	24.9
채소산나물(시설)	16,589	2,667	13.9	10,908	6,132	36.0
과수(노지·시설)	26,684	1,672	5.9	6,319	508	7.4
특용약용(시설)	437	138	24.0	1,292	1,148	47.0
특용약용(노지)	7,265	825	10.2	3,766	994	20.9
원예(시설)	776	103	11.7	783	469	37.5
원예(노지)	1,757	81	4.4	1,591	176	10.0
기타작물(노지)	937	133	12.4	450	133	22.8
기타작물(시설)	998	137	12.1	941	345	26.8

주1: 농업총조사에서 임시근로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인 자를 의미함.
주2: 농업총조사는 일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없음.
자료: 엄진영 외(2017),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015년

2. 코로나 19와 농업 고용노동력

2.1. 코로나19와 내국인 근로자

- 내국인 기준, 농업고용노동력은 5-6월과 9-10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므로 내국인들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등의 우려로 해당 시기 고용노동력 투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수(내국인, 외국인) (2015년)

단위: 천 시간

월	노동력 원천								합계
	가족 노동		고용 노동		품앗이		자원봉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6,074.0	11,185.8	1,516.8	3,177.0	41.8	53.8	234.4	173.5	32,457.2
2	18,947.6	12,927.9	2,027.3	3,616.4	100.8	199.4	568.4	274.2	38,662.1
3	27,519.1	19,637.9	2,663.3	6,302.2	230.8	407.5	1,093.2	491.5	58,345.7
4	35,368.7	27,830.6	2,771.4	6,783.2	907.4	1,063.8	1,895.0	1,095.8	77,716.0
5	45,443.2	35,635.0	3,998.7	10,989.8	827.5	931.6	3,030.1	1,784.3	102,640.1
6	45,083.1	37,093.7	3,110.1	10,904.4	422.5	431.8	2,492.3	1,717.7	101,255.7
7	37,428.9	31,169.5	2,199.2	5,829.8	127.3	254.1	1,469.5	813.5	79,291.8
8	37,788.7	32,829.5	2,105.1	5,419.2	139.6	501.1	1,219.6	1,083.5	81,086.3
9	34,568.7	29,676.6	2,319.5	9,065.0	217.9	529.3	1,530.5	1,317.9	79,225.5
10	35,619.6	32,542.7	3,366.3	9,178.3	506.5	891.4	2,259.7	1,320.0	85,684.6
11	27,084.6	23,391.9	2,608.6	8,055.6	443.8	426.7	1,662.2	1,298.8	64,972.2
12	15,948.9	11,604.0	1,933.2	3,109.5	54.6	184.9	737.3	532.7	34,105.1
합계	376,875.1	305,525.3	30,619.6	82,430.6	4,020.6	5,875.4	18,192.3	11,903.4	835,4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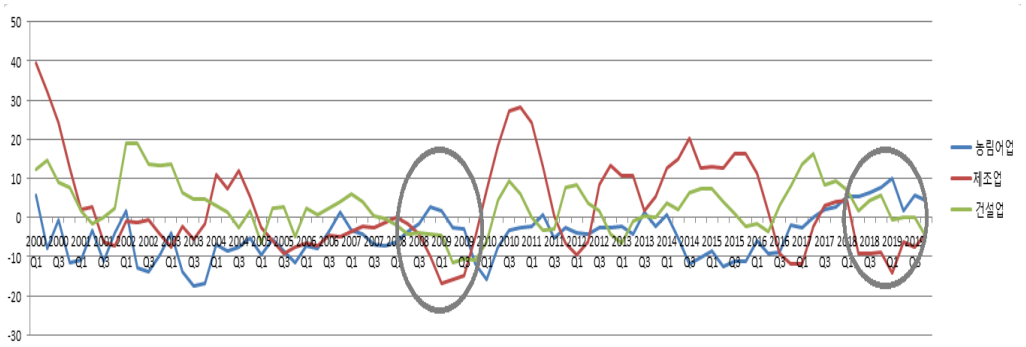
자료: 엄진영 외(2018), 농가경제조사. 2017.

-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상황 악화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로 인해 이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일시적 인력 유입 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 1998년 IMF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제조

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함(그림 3).

- 코로나19가 실물·금융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므로 당장의 인력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분기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 비교(전년 동기 대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0년 1/4분기~2019년 4/4분기)

2.2. 코로나19와 외국인 근로자

- 현재 합법적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인력이지만 그 수가 감소함.
  - 고용허가제는 매년 도입규모(Quota)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상용근로자가 대상인 제도임.
  - 계절근로자제도 마찬가지로 도입규모(Quota)와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만, 임시근로자(3개월 또는 5개월 고용)대상 제도임.

농업부문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및 입국시기

고용허가제(2020년 기준)

배정시기	1월(2,650명) 3월(1,590명) 6월(530명) 9월(530명)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계절근로자제(2019년 기준)

배정시기	상반기, 하반기에 배정/ 지자체 상황별로 상이함.
주요 출신국가	2015년 10월-2019년 누적, 필리핀(1,652명), 베트남(1,063명), 중국인(262명), 몽골인(233명), 캄보디아인(169명) 순서임.

- 2020년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기가 노동력 투입시기와 일정부분 맞물려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 한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임.
  -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6년에 추산한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이 비율은 21.9%(E-9, 2016년)이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모는 미등록 외국인 국내체류 규모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으로 인한 입국규모 감소에 따라 달라질 것임.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우선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한시적 운영으로 인한 자진 신고·출국에 따른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공급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초기를 제외하고, 그 이후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출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상황은 발생 초기 출국 후 다시 입국하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과,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의 입국제한으로 전체적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2.3. 코로나 19 발생 후, 농림어업 고용 동향

• 전년 동월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월~4월까지 모두 증가

-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농림어업 1월 취업자 수는 총 78,840명 증가, 2월 취업자 수는 총 79,520명, 3월 취업자 수는 134,181명, 4월 취업자 수는 72,997명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증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함.

-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5-6월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감과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움.
- 다만, 일부 인력부족 문제를 가족노동력 투입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발생 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력소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에서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번기 고용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년 동월대비 농림어업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어, 농번기의 고용노동력을 구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함.

- 4월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여전히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농업부문 인력부족 현상을 가족노동력 투입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2020년 농림어업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고용원 O	고용원 X		
1월	7,097	-2,337	-2,879	5,349	48,017	23,594	78,840
2월	6,988	-4,740	-1,639	-1,615	58,521	22,005	79,520
3월	8,350	-4,998	-2,130	4,681	66,649	61,628	134,181
4월	7,258	-7,277	-8,059	-103	47,717	33,462	72,99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2019년. 2020년

2.4. 코로나 19 발생 후, 농업인력 애로 실태조사

□ 코로나 19 발생 후, 농업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

- 전년(2019년) 동월 대비 3월과 4월에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전반적으로 느꼈으나, 작년 동월 대비 어렵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이 점차 증가함. 고용노동력 투입이 집중되는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는 농가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음.
  -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3월에 38.6%의 농가(전체 응답농가: 655농가)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4월에는 42.6%(전체 응답농가: 665농가)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음.
  - 5월 일손 부족 예상에 대해서는 응답농가(709농가)의 59.1% 농가가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 파종·정식기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전년 동월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명(%)

	3월	4월	5월
전년 동월과 동일함	395(60.3)	374(56.2)	284(40.1)
전년 동월보다 용이함	7(1.1)	8(1.2)	6(0.8)
전년 동월보다 어려움	253(38.6)	283(42.6)	419(59.1)
응답농가 계	655(100)	665(100)	709(10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는 밭작물과 과일·과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 농가는 4월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6%, 51.0%이었으나, 5월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0%, 79.1%로 상승함.
  - 축산 농가는 인력 수급이 전년 동월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월과 5월 사이에 77.5%~78.5%로 나타나, 연중고용에 따른 단기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밭작물	50.0	0.5	49.5	198	44.9	0.5	54.6	207	30.2	0.8	69.0	242
과일과채	53.6	1.2	45.2	252	47.4	1.6	51.0	253	20.2	0.8	79.1	263
축산	78.5	1.5	20.0	205	78.5	1.5	20.0	205	77.5	1.0	21.6	204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품목과 지역별로 구분하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강원도에서[3], 축산 농가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품목별·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야릅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야릅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야릅	응답 농가
강원	①	43.2	0.0	56.8	44	41.5	0.0	58.5	53	16.9	0.0	83.1	71
	②	80.0	0.0	20.0	15	73.3	0.0	26.7	15	66.7	6.7	26.7	15
경기	①	54.7	0.0	45.3	53	45.5	0.0	54.5	55	31.0	1.7	67.2	58
	②	78.9	5.3	15.8	38	81.6	5.3	13.2	38	83.8	2.7	13.5	37
충북	①	40.7	3.7	55.6	27	40.7	3.7	55.6	27	21.4	3.6	75.0	28
	②	75.0	0.0	25.0	16	75.0	0.0	25.0	16	75.0	0.0	25.0	16
충남	①	33.3	0.0	66.7	15	13.3	6.7	80.0	15	6.3	0.0	93.8	16
	②	76.9	0.0	23.1	26	76.9	0.0	23.1	26	76.9	0.0	23.1	26
경북	①	47.2	1.9	50.9	108	40.0	0.9	59.1	110	22.8	1.8	75.4	114
	②	71.0	3.2	25.8	31	71.0	3.2	25.8	31	71.0	0.0	29.0	31
경남	①	69.7	1.3	28.9	76	64.4	2.7	32.9	73	32.3	0.0	67.7	93
	②	80.0	0.0	20.0	20	80.0	0.0	20.0	20	85.0	0.0	15.0	20
전북	①	26.3	0.0	73.7	19	26.3	0.0	73.7	19	20.0	0.0	80.0	20
	②	80.0	0.0	20.0	25	80.0	0.0	20.0	25	80.0	0.0	20.0	25
전남	①	56.1	0.0	43.9	107	52.3	0.0	47.7	107	26.9	0.0	73.1	104
	②	87.5	0.0	12.5	24	87.5	0.0	12.5	24	75.0	0.0	25.0	24
제주	①	100	0.0	0.0	1	100	0.0	0.0	1	100	0.0	0.0	1
	②	80.0	0.0	20.0	10	80.0	0.0	20.0	10	80.0	0.0	20.0	1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 19 발생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크게 시현될 전망

– 코로나 발생 이후 3월과 4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3) 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응답 농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참고로 제주도는 응답한 농가가 1농가이므로, 해석에서는 제외하였음.

응답한 농가는 밭작물(57.1%)과 과일·과채(68.5%)에서 비율이 높았음. 축산농가는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이었음.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 정도 (3월& 4월)

단위: %, 명

	동일함	용이함	어려움	응답 농가
밭작물	42.1	0.8	57.1	126
과일과채	29.6	1.9	68.5	108
축산	76.3	2.2	21.5	93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축산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일·과채와 밭작물은 인력소개소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함.
  - 축산 농가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지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일손 부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 중, 작년 3월,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농가들 대부분은 인력소개소에서 보내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9.7%, 77.3%에 달함.
  -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보다 기존의 비공식적 고용 경로(인력소개소 이용, 지인 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밭작물, 과일·과채 품목에서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고용 외국인 근로자 대비 계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 자체가 낮고,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소개소에 속하거나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변화에 따라 향후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고용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2.9	3.8	65.0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7.3	5.1	0.0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68.1	53.2	25.0
지역 내 농작업팀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0.1	13.9	0.0
지인(다문화가정포함)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1.6	24.1	10.0
응답 농가	138	79	20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 19 발생 후, 근로자 임금 변화

- 전년과 올해 3월 농가가 지급한 임금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과일·과채, 축산 품목에서 전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과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전년 3월과 올해 3월 동일한 농가 비율이 62.9%에서 82.1%로 나타남.
  - 축산품목에서는 전년 3월과 올해 3월 임금을 비교할 때,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는 67.6%에서 83.6%이었음.
  - 밭작물의 경우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조사한 품목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50.0%에서 83.3%로 나타남. 작년 3월과 비교할 때 올해 3월에 지급한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16.7%에서 48.1%로 나타나, 밭작물에서 인건비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월에는 인건비가 전년 4월에 비해 상승했다고 응답하는 농가 비율이 밭작물에서 주요하게 증가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크게 나타남.
  - 밭작물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높았고,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전년 4월과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작업에 필요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밭작물 농가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보다 인력소개소, 지인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즉, 밭작물에서는 인력소개소와 지인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가 전년 4월에 비해 적어, 임금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음.
  - 과일·과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과 4월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이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가 밭작물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을 감안하면,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5월과 9-11월 인력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축산은 연중 고용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단기 인력 부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 19 발생 이후(3월, 4월) 근로자 지급 임금 변화

전년 동월 대비 3월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83.3	16.7	12	1.2	82.1	16.7	84	0.8	83.6	15.6	128
외국인 남성	10.9	50.0	39.1	46	10.1	69.6	20.3	69	3.9	68.0	28.1	153
내국인 여성	0.0	51.9	48.1	27	3.1	71.9	25.0	96	1.5	67.6	30.9	68
외국인 여성	2.7	54.1	43.2	37	7.1	62.9	30.0	70	4.8	71.0	24.2	62

전년 동월 대비 4월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70.6	29.4	17	1.4	76.4	22.2	72	1.8	78.9	19.3	114
외국인 남성	7.3	45.5	47.3	55	9.8	68.3	22.0	82	2.6	65.8	31.6	152
내국인 여성	0.0	54.8	45.2	31	5.7	72.6	21.7	106	1.5	69.1	29.4	68
외국인 여성	2.6	46.2	51.3	39	10.2	65.9	23.9	88	6.2	67.7	26.2	6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3. 코로나 19에 따른 농업 인력 수급 대응 과제

3.1. 공공 농업고용서비스(일자리 소개·알선) 강화와 지원확대 필요

- 코로나19가 현재 국내외로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농업 고용노동력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체 농업 고용노동력 규모 감소를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 농업고용서비스(농산업인력중개센터, 농촌고용중개센터, 지자체별 고용중개센터 등)를 강화하여 해당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소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농번기 때 타산업 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인력 유입 또는 실업상태에서의 농업부문으로의 유입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력 수요와 인력 공급 연결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알선·소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도시 자영업부문에서 실업 위기에 있는 도시민이 일시적으로 농촌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금격차에 대한 정부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민의 농업노동력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농가측면에서는 비슷한 노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불일치성이 존재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3.2. 농업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보완 방안이 필요함.
  -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감소를 완화하고자, 3월 30일부터 방문동거(F-1)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에게 90일 또는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부문에 일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고용허가제(E-9)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 취업 대기 외국인을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로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현장에서 방문동거(F-1)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부문 한시적 취업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4],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대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0일을 추가로 연장하여, 제조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부문 취업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음[5].
  - 두 제도 중 현실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F-1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업부문 취업 정책에 대해 농가와, 특히 다문화이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3.3. 농작업 인력 건강관리 체계 마련 필요

- 농작업은 농번기철(4-6월, 9-11월)에 일시적·대규모로 인력이 투입되므로, 감염자 발생시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농번기철에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일부 작업단에서는 주산지를 따라 광역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감염자 발생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될 개연성이 있음.
  - 현재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감염 관리 체계와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농번기 시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2020년 5월 둘째주-셋째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가대상 인터뷰 결과임.

5) 2020년 5월 고용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임. 농업부문에 비해 제조업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취업하기로 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함.

- 지역사회 내의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입국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재 농업부문에 체류·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함.
  - 현재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스템인 고용허가제(E-9)에서는 입국 전 건강검진,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재실시하지만,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계절근로자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해당지자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해당 농가로 이동' 과정에 입국 후 건강관리 교육이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장에서 건강관련 교육 실시 방안 검토가 필요함. 또한, 농가의 사업장 위생 관리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더불어 손 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필수 착용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함.

코로나19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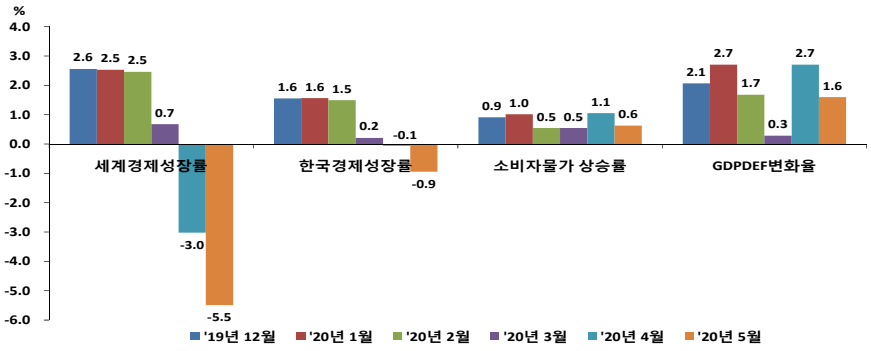
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1. 영향분석 시나리오

1.1. 영향분석 배경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에 실물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심화 등 세계 및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보다 하향 조정됨.
  - Global Insight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19.12) 1.55% → ('20.1) 1.56 → ('20.2) 1.49 → ('20.3) 0.21 → ('20.4) △0.06 → ('20.5) △0.94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12) 2.56% → ('20.1) 2.53 → ('20.2) 2.46 → ('20.3) 0.68 → ('20.4) △3.02 → ('20.5) △5.49로 하향 조정함.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월별 변동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oonb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goldbl@krei.re.kr)

- IMF('20.4)는 중국경제성장률을 3.6% → 1.2로, 미국은 2.0 → △5.9, EU 1.3→△7.5, 일본 0.7 → △5.2, 신흥국 4.4 → △1.0, 한국 2.2 → △1.2로 하향 조정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IMF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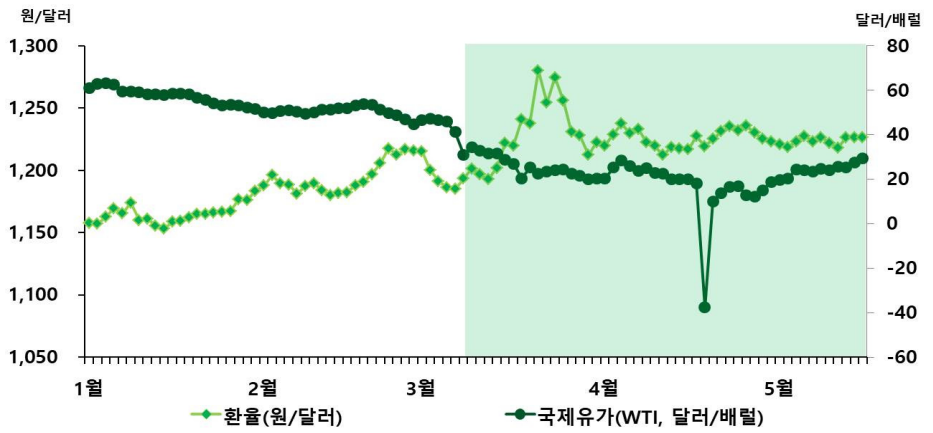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2)
World	2.9	3.3	-3.0(-6.3%p)
한국	2.0	2.2	-1.2(-3.0%p)
미국	2.3	2.0	-5.9(-7.9%p)

주 1. IMF는 지난 4월 14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을 수정 전망하여 발표하였음.
2. 수정 전망치의 ( )는 1월 발표한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변화율임.
자료: IMF. 4월 14일

- 세계경제 불황 위험 전망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원화 약세로 환율이 상승하였으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있으며(최근 0.5%), 양적완화(QE) 및 채권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5년 국고채 금리는 1.2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의 월별 변동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 공급과잉 구조 지속으로 OPEC+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폭(세계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조정) 상쇄 부족 우려, 서부텍사스유(WTI) 5월물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발생한 매도 포지션 증가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이동제한, 국가 간 입국제한 등의 조치가 강화되어 사회경제적 위축상황이 발생, 경기침체가 초래됨으로써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경기침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많은 외식산업이 극심히 위축되고, 농업생산도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임.
- 이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부문 영향을 총량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1.2. 파급영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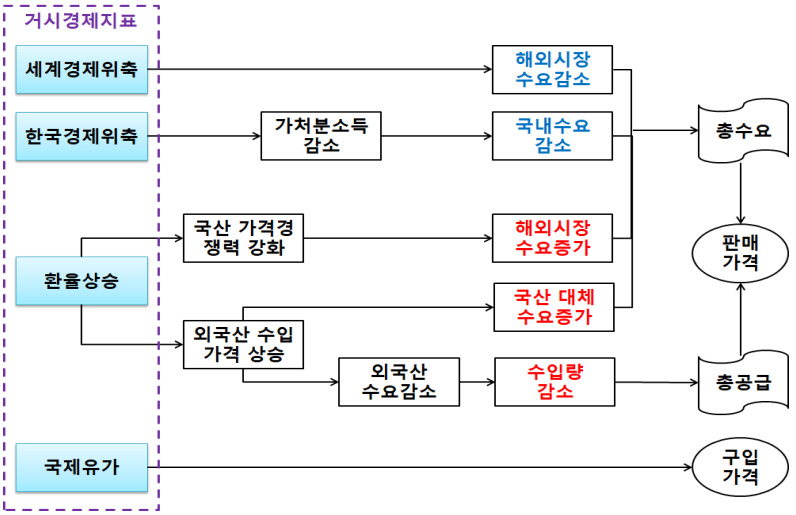
- (세계경제 위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시장 소비가 위축되며, 이로 인한 수출량 감소 및 총수요 감소로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경제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영향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국내 농산물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GDP 디플레이터 하락 또한 국내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락 시켜 국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환율상승)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입 양측 모두에서 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함.
  - 수출측면에서는 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수출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측면에서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대체관계인 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산물 수요(수입)가 감소함에 따른 국내 시장

총 공급량을 감소시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국제유가 하락) 비료, 농약 , 광열비 등 농업투입재 가격을 하락시켜 구입가격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저자작성.

1.3. 거시경제지표 시나리오 설정

- 베이스라인은 연초 「농업전망 2020」('20.1.22)에서 사용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기준으로 농업총량 및 농가경제 전망치 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함.
  -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출처: 한국은행(한국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EIA(유가), IMF, World Bank(세계경제성장률), Global Insight(기타)
- 시나리오는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World Bank, Global Insight, IMF에서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준용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함.

- 코로나19가 국내는 6월 말 이후 안정화되는 반면, 국외 확산은 지속되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시나리오1, 국내 및 국외 확산이 연간 계속 지속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시나리오2로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은 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치(20.5.15)인 △5.49%로 설정함.
  - 한국경제성장률은 World Bank(△2.59%) 전망치를 시나리오 2로, 가장 긍정적인 Global Insight(△0.94%) 전망치를 시나리오 1로 설정함.
  - 국내 거시경제 지표 중 소비자물가상승률,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이자율은 Global Insight의 최근 전망치(20.5.15)을 설정함.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국제유가의 급락과 환율의 급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3월 9일~) 평균과 올해(1월 1일~) 평균을 범위로 설정함.

코로나19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지표 전망치 가정[1)]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비고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세계 경제성장률(%)	2.80	-5.49		Global Insight 전망치
한국 경제성장률(%)	2.30	-0.94	-2.59	World Bank, Global Insight 전망치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0.63		Global Insight 전망치
GDP디플레이터 변화율(%)	2.07	1.60		Global Insight 전망치
환율(원/달러)	1167.7	1204.4 ~ 1227.0		2020년 1월부터의 추이 반영
국제유가(달러/배럴)	59.25	21.7 ~ 39.8		2020년 1월부터의 추이 반영
이자율(%)	1.54	1.35		Global Insight 전망치

자료: World Bank(20.3.30), Global Insight(20.5.15), 한국석유공사, IMF(20.4.14).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물류시스템이 악화되어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확대가 제한되는 경우를 시나리오 3으로 설정함.
  - 이론적으로는 환율 상승효과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수출 항공편의 중단·감축 운행과 해외 유통매장 방문객의 감소로 현실적으로는 수출확대 가능성 미미함.

- 코로나19의 국내 및 국외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물류교역이 제한될 것으로 가정하여 국산 농산물 수출량은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2. 영향분석 결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농업부문 생산액은 소비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베이스라인 대비 0.4%~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1) 국내외 경제 위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수요 감소 영향이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격 상승 영향보다 높아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2) 코로나19가 연중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폭이 커져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3) 농산물 교역제한에 따라서 농업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화훼류,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는 감소하나 우제류와 과실류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화훼류) 2월~3월 성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졸업행사 취소 및 개학 연기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5.7%~7.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이는 화훼가 생필품이 아닌 기호품의 성격이 강하여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임.
    * 2월 졸업식·발렌타인데이, 3월 입학식·화이트데이 등 행사 취소로 특수기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
  - (과실류) 수입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로 인한 국산과일 수요 증가 효과가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커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육류) 주요 생산 국가의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량

감소와 외식수요는 감소한 반면, 가정내 육류 수요의 급증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무역수지적자는 베이스라인 대비 4.4%~7.6% 개선되며, 자급률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1~3 모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무역수지는 큰 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 (수입액) 환율 상승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3.4%~5.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렌지 및 열대과일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채소류, 축산물, 곡물류 순으로 나타남.
  - (수출액) 환율 상승폭에 따라 베이스라인 대비 0.0%~1.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됨. 한편,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제거(시나리오3)하면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자급률) 수입량 3.1%~4.8% 감소로 자급률은 0.3%p~0.4%p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업생산액 변화 분석결과

구분	2019년	202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농업 총생산액	50,428.4	50,438	-0.4%	-0.9%	-1.0%
재배업	30,705.4	30,572	-1.1%	-1.3%	-1.4%
곡물류	10,829.6	10,974	-1.1%	-1.4%	-1.4%
채소류	11,389.6	10,968	-1.4%	-1.9%	-2.0%
과실류	4,705.8	4,821	0.4%	0.9%	0.9%
화훼류	524.5	522	-5.7%	-6.7%	-7.0%
축잠업	19,722.9	19,866	0.7%	-0.2%	-0.4%
우제류	14,322.6	14,394	1.5%	0.6%	0.5%
가금류	4,887.1	4,955	-1.1%	-2.5%	-3.0%

주: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각 연도)

코로나19 이후, 한국 무역수지 및 자급률 영향 분석결과[1)]

단위: 십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무역수지 적자(B-A)	210.5	222.6	-4.4%	-7.6%	-6.4%
수입액(A)	276.6	290.2	-3.4%	-5.5%	-5.5%
7대 곡물	41.8	42.6	-0.7%	-1.1%	-1.1%
5대 채소	1.8	2.3	-3.9%	-5.8%	-5.8%
과일	12.9	13.3	-4.4%	-6.8%	-6.8%
6대 과일	1.6	1.6	-2.7%	-4.1%	-4.1%
오렌지·열대과일	11.3	11.7	-4.7%	-7.2%	-7.2%
5대 축산물	59.7	66.7	-0.3%	-2.2%	-2.3%
수출액(B)	66.1	67.6	0.0%	1.4%	-2.5%
7대 곡물	0.0	0.0	-0.2%	0.5%	-1.6%
5대 채소	1.6	1.3	-2.4%	-2.4%	-3.0%
6대 과일	1.2	1.2	-1.7%	-0.9%	-1.8%
5대 축산물	1.9	1.8	-1.9%	-0.7%	-3.5%
기타 가공품	52.3	53.8	0.3%	2.0%	-2.5%
총수입량	37,188	38,037.7	-3.1%	-4.8%	-4.8%
총수출량	3,399	3,409.0	1.0%	3.1%	-1.0%
농산물 자급률[2)]	71.0%	70.8%	0.3%p	0.4%p	0.4%p
7대 곡물	45.2%	45.4%	0.2%p	0.2%p	0.2%p
5대 채소	62.8%	64.7%	1.1%p	1.5%p	1.5%p

주 1. 7대 곡물은 쌀, 콩,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보리이며, 5대 채소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6대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5대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임.
2.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 소비량 * 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와 농산물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3. %는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수출정보).